

UOM:

VISION OF MEDICINE

의료의 미래 나눔의 행복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2026 SUMMER Vol.50

생로병사: 시간의 미학

Fiction

동면
심너울 SF작가

Interview

정혜윤 CBS 라디오 프로듀서·작가
박지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동훈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소아백혈병을 이겨내고 배움을 디자인하는 이한별 님

Pioneer

홍경택·강형진, 한도현 교수 연구팀
박준빈·곽순구 교수 연구팀

Medical Bridge

소방 특화의료에서 지역 공공의료까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국립소방병원

Uom:

VISION OF MEDICINE

SUMMER 2026

VOL. 50



- 04 Fiction
동면
심너울 SF작가
- 11 Human Graphic
길어진 시간, 달라진 사회
- 12 Interview1
삶의 기쁨을 기억하는 법
정혜윤 CBS 라디오 프로듀서·작가
- 16 Interview2
노년은 삶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박지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20 Interview3
피부는 시간을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동훈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 24 Interview4
하얀 병원을 제 색으로 채워갔어요
소아백혈병을 이겨내고 배움을 디자인하는 이한별 님

생로병사: 시간의 미학



- 26 Things
창(窓), 다시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
최정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교수
- 28 Roaming
그 모험을 과학이라 부른다
강창경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 30 Bookmark
AI가 영상을 읽고, 임상을 추론하는 시대
김영곤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의료영상 담당교수(융합의학과 교수)
- 32 Pioneer1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합병증,
‘이식 전’ 예측 가능성 열다
홍경택·강형진, 한도현 교수 연구팀
(소아청소년과, 융합의학과)
- Pioneer2
임신 중 고혈압, 출산 후
심혈관 건강을 살피는 신호
박준빈·곽순구 교수 연구팀 (순환기내과)
- 36 Medical Bridge
소방 특화의료에서 지역 공공의료까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국립소방병원

- 40 Campaign
모두의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 42 Donation Interview
오래 간직한 고마움을
나눔으로 전하고 싶어요
송익선 후원인
- 46 Donation Spot 1
병원 속 작은 도서관, 제중원서재
- Donation Spot 2
서울대학교병원의 얼굴, 휠체어 대여소
- 50 SNUH Network
- 54 Donation News
- 55 SNUH Donators
- 59 SNUH Channels

프로야



※ 2026년 매거진 <VOM>에서는 생로병사를 문학적 시선으로 성찰하는
연재 소설을 선보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쿨럭, 쿨럭!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례가 걸린 듯한 이 기분은 동면관에서 몇
년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우주비행사가 되는 건 멋진 일
일지도 모른다. 광대한 우주의 탐사자.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다만 장기 동면을 한 번 겪고 나
면, 직업 안내 책자의 문구는 전부 사기처럼 보인다. 동면관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하나가 헤엄
치듯 날아왔다. 나보다 일찍 깨어났는지 조금 더 뺄었다.

“인공지능이 깨웠어. 인간 거주 행성 발견이래.”

“우린 몇 년 잤는데?”

“8년. 지구 사람들은 우리보다 16년 정도 더 늙었겠지.”

“얼마 안 흘렀네.”

사람들은 탐사자가 상대성 이론 때문에 가족과 시간적으로 멀어진다는 데 경악한다. 나는 그냥 깨어
있는 것보다 잠들어 있는 게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샤워를 끝내고 조종실로 갔다. 일곱 면
의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행성이 떠 있었다. 지구와 닮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푸른색을 완두
콩을 먹고 토한 듯한 초록으로 바꾸고, 대지의 누런색을 검정으로 칠하고, 숲을 전부 지워버린다면.

“인간 거주 행성이라고?”

“혹은 거주했던.”

뻘했다. 수백 년 전 지구의 파종선이 닿았고, 역사 없는 아이들이 자랐고, 기술을 쌓았고, 갈등을 해
결하는 데 수소폭탄만 한 도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지. 감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자기파괴성
이나 타나토스를 말하겠지만, 탐사자에게 이런 건 그냥 짜증나는 짱이다.
그때 조종석에서 아르케의 목소리가 들렸다.

“행성에서 인간 조난 신호가 감지됩니다.”

나는 머리를 긁었다.

“혹시 신호기만 켜져 있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거 아냐? 한 번 착륙하는 데
연료가 얼마데.”

“태영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세계를 찾아가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
면 돕고. 우리가 정부 돈을 타먹는 이유가 뭐니?”

매우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아, 방호복 또 입기 싫은데.



착륙은 지독했다.

대기권의 불꽃이 창을 훑고, 관성력이 8년 누워 있던 몸을 짓눌렀다. 백열이 사라지자 납빛 구름이 시야를 삼켰고, 그 아래로 옛 도시의 폐허가 드러났다. 콘크리트 건물들은 녹슨 철근을 드러낸 채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거대한 가시관 같았다. 폐허라면 식물과 균류가 파고들 법도 한데 생물의 흔적은 없었다. 이 행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실로 인간적인 존재였던 모양이다.

하나는 핵엔진을 끄고 중력자 엔진을 켜다. 우주선은 비행이라기보다 공중부양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폐허 위를 미끄러졌다. 신호는 외딴 황무지의 작은 강철 돔에서 오고 있었다. 돔은 검댕과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출입구 근처만은 깨끗했다. 방호복이 공기를 정화해 주는데도 입안에는 쇠가루 같은 맛이 감돌았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꾸준히 닦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르케, 통신 가능해?”

“시도하겠습니다.”

잠시 뒤 패널에서 여자아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발음은 또렷했지만 박자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출입을 허가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죠?”

“방문자는 백사십이 년 만에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와 나는 서로를 봤다.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에어록을 지나자 안쪽은 눈이 부실 만큼 깨끗했다. 흰 조명, 회색 타일, 한 점 먼지 없는 바닥, 정돈된 케이블과 배관. 그리고 돔 중앙에는 동면관이 한 대 놓여 있었다. 캡슐 안에 한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모니터의 심박수, 호흡, 뇌파, 체온은 모두 정상이었다. 바깥에서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숲이 사라지고, 이 행성의 인간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이 안에서는 한 사람의 심장이 분당 오십이 회로 뛰고 있었던 것이다.

“아르케, 기록 뽑아 줘. 이 사람 누군지, 언제 들어왔는지.”

“해당 시설에는 생명유지 시스템 외 정보가 없습니다. 직접 깨워야 합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요즘 인공지능을 초지능이라고 한다니까.

“기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동면액이 빠져나가며 안에 누운 사람의 윤곽이 또렷해졌다. 노인이었다. 캡슐이 열리자 동면액 특유의 비릿하고 단내 나는 공기가 방을 채웠다. 그리고 기침이 시작됐다.

쿨럭, 쿨럭! 쿨럭, 쿨럭, 쿨럭!

너무 잘 아는 소리였다. 노인의 마른 어깨가 들썩였고, 입가로 노란 점액질이 흘렀다.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상반신을 일으켰다.

“몇 년이오.”

그것이 첫 문장이었다.

“백사십이 년 하고도 칠 개월 되었습니다, 박사님.”

돔의 인공지능이 말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캡슐 가장자리에 앉혔다. 몸은 종이로 만든 새 같았고, 캡슐 가장자리에 앉히자 맨발 끝이 바닥에 닿지 못했다. 노인은 그래도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미아야.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미아. 아마 이 돔에 설치된 인공지능의 이름이겠지. 노인은 우리를 보았다.

“당신들은 방문해주신 분들이오?”

“그렇습니다.”

“뎌 길 오셨겠소.”

“10광년쯤.”

“지구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우리의 방호복을 보며 말했다.

“웃이 굉장히 두껍구려. 우주여행에는 그런 옷을 입는가 보군.”

“그런 편입니다.”

나는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김새가 심상치 않았다. 노인은 백사십 년을 훌쩍 뛰어넘고도 놀라기는커녕, 오래 기다린 택배를 받은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재미있는 일이군. 도시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동쪽으로 오십 킬로미터쯤 가면 내가 살던 도시가 있소. 큰 강이 한가운데를 흐르지. 북쪽에는 내가 좋아하던 미술관도 있고. 그곳을 거쳐 오셨소?”

나는 그 거대한 가시관을 떠올렸다. 탐사자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없다. 수백 년의 동면 끝에 깨어났는데 바깥 세상이 멸망해 있는 경우.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돔 밖으로 나가면 숨도 쉴 수 없는 공기가 그를 맞을 것이다.

“어쩌다 행성 위에서 동면하셨습니까? 보통 동면은 우주 여행에 쓰이는데요.”

“아, 난 미래를 보고 싶었소. 내가 살던 시대는 노화를 막을 수도 없는 미개한 시대였지. 더 발달한 기술,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었소. 그리고 보시오. 정말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날 일으켜줬지 않소.”

노인은 잠깐 씩씩해졌다가 곧 다시 신이 나서 말했다.

“친구들도 같은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노화는 극복되었소? 질병도 없지요? 인간들은 평생 즐거움만 누리고 살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예?”

“말씀하신 도시는 지나쳐 왔습니다. 저는 가시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철근이 폐허가 된 빌딩 사이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서요.”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선생님이 기대한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은 전쟁으로 부서졌어요. 생물 한 톨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하나는 팔짱을 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노인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미아야.”

“네, 박사님.”

“왜 일찍 깨워서 알려주지 않은 거니?”

“박사님이 동면에 드신 직후 세계 규모의 상호확증파괴적 핵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박사님은 더 좋은 미래에 방문객이 오면 깨워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명령이라고 지켰더니!”

노인이 에어록 쪽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그를 막았다. 동면과 노화로 허약해진 노인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도 잤은 동면으로 허약하긴 마찬가지지만.

“비켜주세요. 내 도시가 있다지 않소. 내 집이 있고, 강이 있고, 미술관이 있다지 않소.”

“없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절망적인 탄식을 내뿜었다. 그리고 와락 무너지듯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미아는 아무 소리 없이 실내 온도를 조금 올리고 조명을 낮췄다. 옛 인공지능치고는 눈치가 있었다. 아니면 백사십이 년 동안 노인의 수치를 지켜보다 그런 루틴만 남은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선생님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말했다.

“함께 우주로 가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동면시켜드릴 수 있어요.”

“지구에는 아직 사람이 있소?”

“예. 가장 번화한 세계입니다.”

“그곳도 늙고 병드는 세상이오?”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덜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곳보다는 낫습니다.”

“이곳보다는.”

노인은 그 말을 천천히 따라 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결국 미래에도 사람은 조금 덜 고장 날 뿐이군.”

“아마도요.”

“그런데 나는 그 조금 덜 고장 나는 세상을 보려고 모든 것을 두고 왔소.”

그는 동면액에 붙어 쪼글쪼글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보다 네 살 많은 아내가 있었소. 자식은 없었지. 친구들은 많았소. 가장 아끼던 친구가 죽었을 때 나는 동면을 결심했소. 그들의 죽음을 보며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닐지 몰라도 배신은 맞소. 나는 내 시대를 버렸소.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버렸고, 내가 증언해야 할 몰락도 버렸소. 더 좋은 미래가 보상해줄 거라 믿었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미아야.”

“네, 박사님.”

“너는 계속 여기 있었니?”

“네. 생명유지, 청소, 외벽 정비, 조난 신호 송출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예.”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도?”

“예.”

“무서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사님을 잃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랜 동면을 버티셔서 기뻐요.”

노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듯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부탁이 있소. 데려가려는 마음은 고맙소. 하지만 다시 한 번 내 시대를 건너뛰고 싶지 않소.”

“여기는 선생님 시대가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바깥은 방사능 황무지예요.”

“그러니 남겠소.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소.”

“구조 거부입니까?”

하나가 물었다. 목소리가 딱딱했다. 기록에 남길 말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 의지로 이곳에 남겠소. 미아가 있지 않소. 이 돛이 미아고, 미아가 이 돛이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준, 내 시대의 마지막 파편이오.”

“아르케, 기록 중이지?”

“기록 중입니다. 대상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이나 문답의 논리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공지능이 쓸모가 있다.

하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여벌 방호복 한 벌. 보존식량 삼십 년분. 의료 키트. 정수 필터. 통신 중계기.”

“하나야.”

“조난자를 버리는 게 아니야. 구조 거부자에게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거야.”

노인은 방호복을 입고 처음으로 돛 밖으로 나섰다. 잿빛 하늘과 검은 들판, 멀리 무너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마음을 바꾸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다.

“정말로 내 세상은 쇠락했군요.”

하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같이 가지겠습니까?”

노인은 검은 들판 너머를 보며 대답했다.

“나는 충분히 멀리 왔소.”

그는 다시 돛으로 들어갔다. 에어록이 닫히기 전, 미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방문자를 배웅합니다.”

“아니야, 미아. 이제 손님은 나다.”

잠시 정적.

“수정하겠습니다.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문이 닫혔다.

우주선이 다시 상승했다. 하나는 중력자 엔진 출력을 낮추며 핵엔진을 가동했다. 아르케는 우리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초지능답달까.

나는 부조종석에서 투덜댔다.

“그래서 결국 바뀐 건 없잖아. 우리가 누굴 구조한 것도 아니고.”

“구조했지.”

“누구를?”

“미몽으로부터.”

아직 G-포스가 견딜 만할 때, 하나가 말했다.

“이번엔 바로 동면하지 말고 일상을 조금 즐겨 볼까.”

“우주선 안에서 놀 게 뭐가 있다고.”

“찾아보는 거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녀가 조종간을 당기자 끔찍한 관성력이 덮쳐왔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납빛 구름이 창밖으로 사라졌고, 목 안쪽에서 아주 낮은 기침이 다시 올라왔다. UOM

십너올 SF작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이런저런 과학 분야를 끼적대는 과학 딜레탕트라고 스스로 정의한다. 재미있는 소설로 자신의 느슨한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긴다.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땡스 갓, 잇츠 프라이데이』, 『야구 좀 못해도 내일은 온다』 등 10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인식론은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를 인간의 생로병사와 연결하여 글을 썼다.

길어진 시간, 달라진 사회

대한민국의 기대수명 83.7년. 이제 '장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인생의 시간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무게와
시니어들이 마주한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유소년부양비

14.1명

2026년 기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기대수명

83.7년

노년부양비

31.3명

2026년 기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대인의
인생 시간표



55~79세 고령층 고용률

(2025.5. 기준)

59.5%



장래 근로 희망

(2025.5. 기준)

69.4%

늘어난 시간만큼 시니어들의 삶은 한층 더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사회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움직이는 이들의 하루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UOM

출처 : 국가데이터처-통계청 「2024년 생명표」, KOSIS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삶의 기쁨을 기억하는 법

정혜윤 CBS 라디오 프로듀서·작가

정혜윤 PD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슬픔과 기쁨을 글로 옮겨왔다. 그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예전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다정한 말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상실과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삶의 기쁨을 기억하는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건네는 문장들을 통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어떤 이야기들을 품어야 할지 들어보았다.

정혜윤 PD는 사람의 말을 오래 듣는 사람이다. 방송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옮겨왔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신이 나는지, 어떤 말 앞에서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유심히 본다. “누구를 책에 담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최선의 방식으로 들려주고 싶거든요.”

그에게 인터뷰는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다. 한 사람 안에 오래 머물던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꺼내보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만나면 “이걸 더 알려야지”, “이걸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 그는 나이 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동안 지내온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보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죠.”

나를 사랑한 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혜윤 PD는 이 질문에 ‘사랑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했다. 젊은 날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많은 마음을 쓴다. 나를 지키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사랑하려 애쓰기 마련이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다.

처음에 난 주로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으니 그럴만도 했지
(...)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를 그다음엔 그걸 잊어
그다음엔 세상을 사랑하는거지

- 메리 올리버의 시 <우선 달콤한 풀>

정혜윤 PD는 이 시를 참 좋아한다고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랑이 줄어드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는 사람들의 말에는 무게가 다르다. “밥 먹었니?”라는 한마디에도 엄청난 감정적 무게가 있고, “별일 없니?”라는 말에도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사랑은 의외로 사소한 것 같아요. 밥을 챙겨 먹었는지 묻고, 안부를 확인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사랑인 것 같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감사하는 방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수밖에 감사하는 방법, 커피에 감사하는 방법, 아름다운 여름날에 감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배우고 싶어요. 세상을 더 많이 고마워할 줄 알고, 작은 것 앞에서 마음이 무뎠지 않는 것. 자신에게만 향하던 마음을 천천히 밖으로 보내는 것. 좋은 나이 들이란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닐까요?”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 매튜 C. 할트먼의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문장



상실의 슬픔 뒤에 다시 보이는 것들

물론 나이 들에는 상실도 따른다.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식의 시간은 갑자기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빨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쓸쓸한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보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산다.

“어느 봄날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무심코 서게 된 은행나무 밑에서도 그런 순간은 찾아와요. 가만히 바라본 그 나무가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나무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왈칵 무너져 내리죠. 이처럼 슬픔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장면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질 때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동심이란 것이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동백꽃을 만나면

동백꽃의 고운 모습에 정신을 파는 마음이다

또한 웅심, 곧 할아버지 마음이란 것이 있다

그것 또한 동백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깊이

정신을 파는 마음이다

- 야마오 산세이 시 <어린이 마음 할아버지 마음>

정혜윤 PD가 말하는 나이 들은 어둠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지나친 것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야마오 산세이의 ‘어린이 마음 할아버지 마음’이란 시가 나이 들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지나친 꽃, 나무, 안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달리 보이잖아요. 전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시간이 흐른 뒤 마치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다시 알아보고 깊게 감탄하게 되는 거죠. 이번 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조금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명씨의 삶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

정혜윤 PD가 추천한 책들도 이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나탈리아 긴초부르그의 「작은 미덕들」, 그는 이 책들에서 평범한 삶이 가진 슬픔과 아름다움을 읽었다. 특히 죽음 뒤에 깨끗이 잊힐 무명씨 같지만 그 평범한 삶 안에도 절망과 희열, 헌신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너」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다.

“모두의 이야기 속에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재료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책 「슬픈 세상의 기쁜 말」도 같은 마음에서 나왔다.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고, 부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올까 무섭고, 내 몸이 아플까 걱정된다. 그래도 우리는 나와 타인을 기쁘게 할 말을 찾을 수 있다. “나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처럼,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다정한 말을 부지런히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최근 정혜윤 PD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던 기쁜 말이 있었다. 그는 최근 알게 된 김치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와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김치현 교수님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환자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첫 질문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였는데, 직업을 묻고 삶의 상황을 찬찬히 들으면서 저에게 꼭 맞는 태도를 알려주셨죠. 치료를 마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날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지만 강렬한 당부를 건네셨어요. ‘몸을 소중히 여겨주세요’라고요.”

그 말이 일반적인 주의사항처럼 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환자들의 슬픔을 지켜봐 온 의사가 건네는 목직한 진심처럼 들렸다.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온 힘을 다해 돌봐야 할 ‘우주’처럼 느껴졌다.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그 한마디 때문이라도 그는 어디선가 꼭 김치현 교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내가 살면서 느꼈던 감탄과 감사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혜윤 PD가 글을 쓰고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다.





삶의 기쁨을 기억하는 일, 메멘토 비타(Memento Vita)

정혜윤 PD는 '삶을 기억하라(메멘토 비타)'라는 말이 지닌 힘을 강조했다.

“다 지나간 일 같아도 우리가 겪은 소중한 순간들, 좋았던 기쁨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꺼내어 기억해야 해요. 그 다정한 기억들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우리를 웃게 만들거든요. 최후의 한 방울까지 삶의 기쁨을 짜내어 기억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그가 말하는 멋지게 나이 들은 젊음을 오래 붙드는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친 일상을 다시 보고, 누군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며, 나와 타인을 기쁘게 할 말을 부지런히 찾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많아진다. 하지만 그만큼 자주 고마워하고 감탄하는 순간도 많아진다. 내게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 나를 살게 한 다정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는다.

그는 요즘 시간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책 제목은 '만약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다.

“시간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눈부신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시간'이니까요.”

정혜윤 PD의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남는다. “삶의 기쁨을 기억하라.” 이 말이 나이 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UOM

노년은 삶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박지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온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평생을 지탱해온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지은 교수는 오랜 시간 노년기 우울증과 인지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며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겪는 변화와 상실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하는 삶에 적응해가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마음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들을 들어보았다.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시기, 노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령에 따라 세부 분야가 명확히 나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노인 정신 분야 정도다. 그만큼 노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엄청난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시기이다. 박지은 교수가 이 복잡한 노년기 정신건강을 자신의 평생 전문 분야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도,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뇌를 비롯한 신체 기능의 저하, 만성 질환, 은퇴와 사별, 급격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까지 모든 스트레스 요인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거든요.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인과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복잡함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의사로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인지장애는 노년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자연스럽게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14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박 교수가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노인 세대의 독립성’이다. 과거에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는 어르신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부부끼리 혹은 혼자서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부부 중심의 독립적인 삶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돌봄과 지지 체계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강을 잃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을 때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취약함과 상실감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두려움은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다.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의존해야 하는 상태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만큼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도 훨씬 깊습니다.”



상실은 서서히 찾아와 삶의 모양을 바꾼다

노년기의 상실감과 고립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 신체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아주 익숙했던 일상부터 서서히 어려워진다. 특히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을 겪으면 큰 고립감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에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박지은 교수는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며 아내와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목표였던 한 70대 남성 환자를 떠올렸다. 완벽해 보였던 그의 노후는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일상 전반에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때로는 폭언을 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완벽하게 준비된 노년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보호자였던 그 어르신도 상담을 이어가며 예전처럼 먼 미래의 행복을 꿈꾸기보다 하루하루 배우자와 평온하게 지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결국 노년기는 ‘변화하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가’의 질문을 마주하는 시기이자 동시에 인간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과정을 겪고 계시기에 저는 그분들의 시간과 삶에 늘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라는 말 한마디의 무게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진료실을 찾을 때 박지은 교수에게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다. 아무리 환자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자기결정 능력이 떨어져도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먼저 질문을 건네는 것이다. 사실 치매 환자의 진료는 보호자의 진술 중심으로 흐르기 쉽다. 실제 증상이나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답답한 마음에 먼저 말을 꺼내려 할 때도 박 교수는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보호자분께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린 뒤 어르신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먼저 여쭙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요. 어렵게 걸음하셨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면 대진(對診)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가 이 사소해 보이는 원칙에 집착하는 이유는 노년이 될수록 ‘누군가 나의 안부와 삶을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경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질문의 방식 역시 치밀하게 의도된 것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라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잘 못 지내셨어도 반사적으로 ‘응, 잘 지냈어’ 하고 입을 닫아버리세요. 하지만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열린 질문을 하면 의외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에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몸의 어디가 불편했는지, 가슴 속 고민들을 툭 터놓으시죠. 그 투박한 대답 한마디 속에 어르신은 진짜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삶의 한 단계입니다.”



치매 예방의 열쇠는 ‘동기부여’ 그리고 ‘맞춤형 활동’

박지은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치매 예방’이다. 그는 인지 훈련 앱이나 코칭 프로그램 등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삶을 바꾸고 싶다’고 느끼는 ‘동기부여’라고 말한다.

“내가 점점 쇠퇴할 거니까 대충 살겠다는 무기력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권해드려도 부담으로 받아들일 뿐 따라오지 못하십니다. 이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만큼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은 ‘개인 맞춤형 제안’이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활동과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평생 걷기만 해오신 분에게 갑자기 헬스장에 다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걸어가다가 운동기구가 보이면 거기서 1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해볼까요?’처럼 본인의 일상적인 수준에 맞춘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많이 움직이고 혼자 지내지 않는 것이다. 노년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한 달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확 빠지는데, 힘이 없어서 못 나가니 더 힘이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어디 안 나가본 사람한테 갑자기 노인정에 가라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가진 관계망 안에서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자주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계속 있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거든요.”

“의존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지은 교수는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치매는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과 간접 비용이 매우 큰 질환이기에 지역 사회와 국가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우울하지’라며 방치하고 가족들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세대 노인들이 전쟁을 겪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느라 경제적,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된 탓이 크죠. 다행히 노년기 우울증 치료는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특히 치료를 받으시면 신체 건강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교수는 노년을 맞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존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인간은 원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며 산다는 건 환상에 가깝죠. 나이가 들며 조금씩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실패나 상실로 받아들이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행복감은 젊은 시절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오는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삶을 지나오면서 생기는 인간적인 변화, 성숙, 깨달음과 지혜에서 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다. 그래서 긴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얼굴에는 결국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남는다. UOM



피부는 시간을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동훈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나이가 들면 피부도 변한다. 햇빛에 노출된 자리에는 색소 침착이 생기고 자주 쓰던 표정 근육을 따라 주름이 자리 잡으며 탄력도 서서히 떨어진다. 이 당연해 보이는 변화는 사실 몸 상태와 생활 습관, 외부 환경이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동훈 교수를 만나 피부 노화의 의미와 '잘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피부, 몸과 환경이 만나는 경계

오전 강의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온 이동훈 교수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가 오랫동안 이어온 연구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정진호 명예교수가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생물학을 중심으로 피부 노화 기전과 제어 분야의 연구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고, 현재의 연구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선배 연구자들에 대한 깊은 예우를 표한 그는 복잡한 인체 생물학 속에서 피부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정의를 덧붙였다.

“피부는 ‘인체와 환경이 만나는 경계면(Human-Environment Interface)’입니다. 햇빛, 공기, 스트레스, 우리가 먹는 것까지 모두 피부에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 전체 노화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체환경경계생물학연구소(IHEIB)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늘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사람은 40대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70대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보다는 시간이 세포에 남긴 후성유전적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부 노화 연구가 결국 ‘시간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사람들이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예전에는 주름이나 색소를 없애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 요즘은 ‘나이답게 그러나 건강하게 보이고 싶다’는 표현을 훨씬 자주 듣게 된다. 소위 ‘곱게 늙는다’는 것, 즉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기간인 ‘스킨스팬(skinspan)’을 늘려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항노화’라는 표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잘 나이 드

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예방적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70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처럼 ‘실제 나이’와 ‘피부 나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화를 관리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피부에 새겨진 시간의 신호

이동훈 교수는 피부 노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내인성 노화’, 다른 하나는 자외선이나 생활 습관처럼 외부 환경에 의해 가속되는 ‘외인성 노화’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피부에서 보는 주름이나 처짐, 기미의 대부분이 외인성 노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는 피부 노화의 약 80%는 외인성 노화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자외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피부가 시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신호의 누적’이라고 표현했다. 자외선과 미세먼지, 스트레스 같은 외부 자극이 피부 세포의 DNA와 단백질에 작은 손상을 남기고, 그 손상이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후성유전적 흔적, 즉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로 세포에 새겨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어느 순간 ‘노화 세포(senescent cell)’로 전환되고, 주변에 염증성 신호를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를 ‘염증노화(inflammaging)’라고 부른다.

“결국 피부의 시간이란 손상과 복구, 실패의 작은 사이클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며 쌓인 결과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50세라도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피부 나이는 1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는 몸의 시간을 비추는 창

이동훈 교수의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피부 노화의 ‘후성유전학’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뇌 축(skin-brain axis)’ 연구다. 후성유전학 연구에서는 DNA 자체보다 시간이 유전자 위에 남기는 흔적에 주목한다. 메틸레이션이나 히스톤 변형 같은 변화들이 콜라겐 침묵(silencing)과 노화 세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자 수준에서 추적하는 작업이다. 실제로 NRIP1, DNMT1, HDAC4 같은 특정 분자들이 콜라겐을 침묵시키고 노화 세포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피부-뇌 축 연구는 피부가 단순히 외부 자극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외선이나 건조 같은 자극에 반응한 피부가 도파민 같은 신호 분자를 통해 뇌의 기억과 신경 생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동물 모델에서 확인되고 있다.

“두 연구를 통해 피부가 몸의 시간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창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부를 살피는 것이 우리 몸 전체가 함께 겪는 노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피부 노화와 전신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부 노화가 심한 사람일수록 피부장벽 손상으로 인하여 만성 가려움이나 수면 장애, 우울감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광노화 정도가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피부에 축적된 당화산물(AGEs)을 피부 자가형광(skin autofluorescence)으로 측정했을 때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치매의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코호트 연구들도 있다.

“피부는 전신 노화의 거울이자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시간의 흔적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피부 노화 연구도 늙어가는 동안 피부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매일의 습관을 기억한다

진료실에서 이동훈 교수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얼마나 치료 받으면 완전히 좋아질 수 있나요?”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노화는 한 번 치료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자외선 차단을 하루 잘했다고 광노화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시술 한 번으로 시간이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충분히 보습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떤 고가의 시술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 가려움증이나 만성 아토피는 ‘평생 관리한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만성질환과 비슷합니다. 당뇨를 매일 관리하듯 피부도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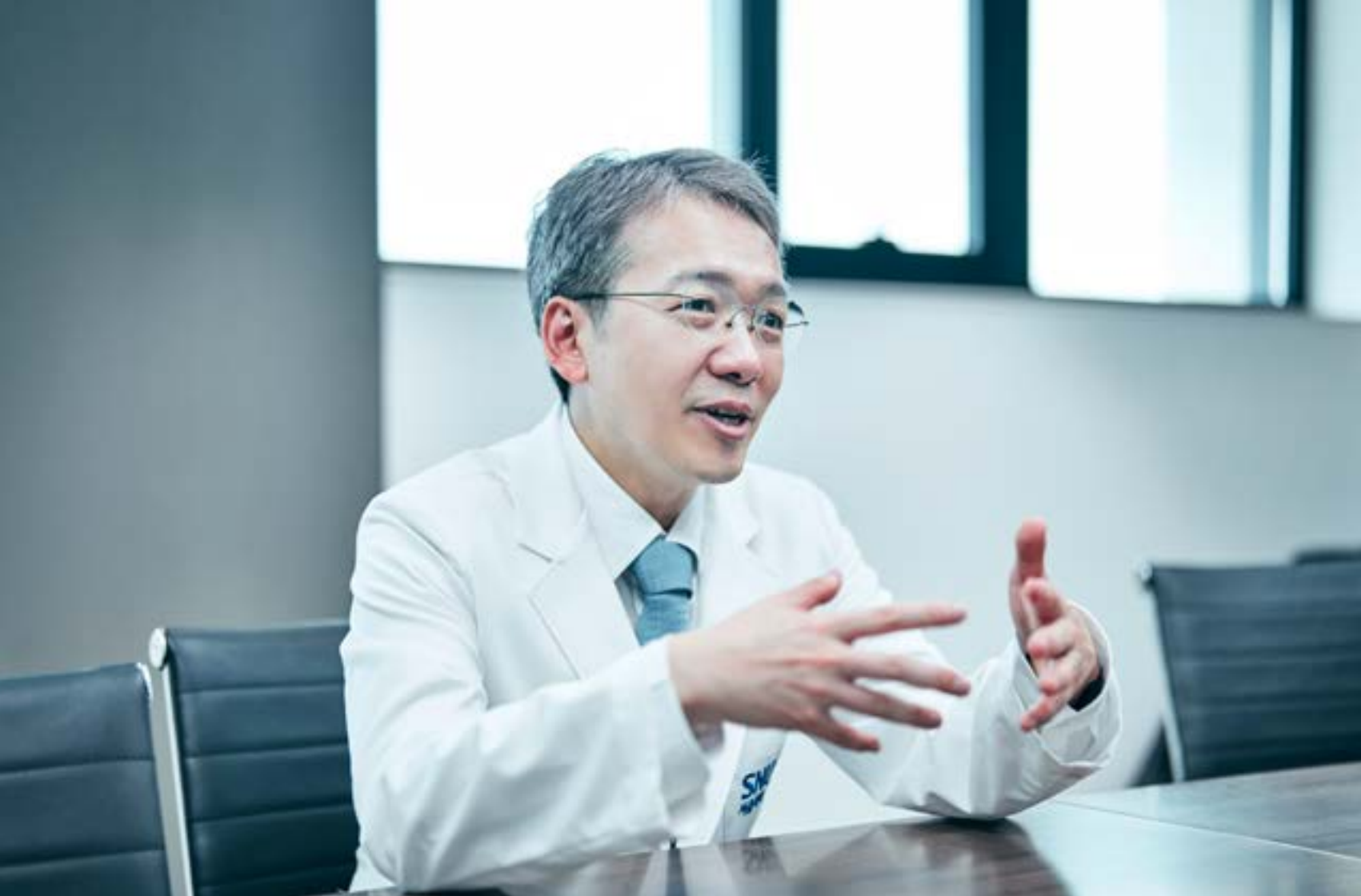
그는 피부 건강을 위해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자외선 차단을 가장 먼저 꼽았다.

“흐린 날에도, 직사광선이 심한 실내에서도, 사계절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항노화 방법입니다. 어떤 시술이나 화장품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죠. 단 3일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외선에 의한 후성유전학적 노화의 진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습 역시 중요하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만성 염증과 노화 신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보습 관리가 필요하다. 잠과 식사 역시 피부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수면 중 피부 세포가 손상을 복구하고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이 그 과정을 돕는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피부도, 뇌도 더 빨리 늙습니다. 운동과 명상,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같은 작은 회복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은 피부 노화(심한 주름)의 위험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노화는 결국 시간이 몸에 새겨 넣는 글씨입니다.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글씨를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새겨갈지를 선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받아들이는 법

이동훈 교수는 피부 노화 연구가 앞으로 '정량화'와 '개인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후성유전 시계와 다중오믹스, 영상 기반 정량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진짜 피부 나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예방 피부과' 개념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년기 가려움증이나 욕창, 광노화 이후 피부암 같은 노인성 피부질환에 대비하는 의료 시스템도 더 발전해야 합니다. 또 안티에이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과 마케팅을 경계해야 하죠. 검증된 활성 성분과 데이터 기반 진단, 그리고 의료, 바이오, IT가 융합된 책임 있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거울 보기가 무서워졌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그는 외형 변화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부에 새겨지는 시간의 흔적은 단순한 ‘늙음’이 아니라 ‘살아

온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도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SNS 속 누군가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돌봄의 일부이고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외모 시술이 인생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한 일상의 습관은 평생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노화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노화는 결국 시간이 우리 몸에 새겨 넣는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글씨를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새겨갈지를 선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의사로서 제 역할은 그 글씨가 너무 거칠게 새겨지지 않도록, 환자분들이 그 흔적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시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글이 새겨질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UOM

하얀 병원을 제 색으로 채워갔어요

소아백혈병을 이겨내고 배움을 디자인하는 이한별 님

어린 시절 병원은 이한별 님에게 두렵고 낯선 공간이었다. 하얀 벽과 환자복, 가족과 떨어져 보내야 했던 긴 시간들까지.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오히려 '당연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다. 하버드 교육대학원(HGSE)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한별 님을 만나 병원에서의 시간이 현재의 삶과 배움에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박선영 사진. 박순재(Studio Cube)



병원에서 배운 것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만난 이한별 님은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린 시절 오랜 병원 생활을 보냈다고 하기에는 놀랄 만큼 담담하고 밝은 분위기였다. 그는 2012년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를 받았다. 치료 과정 중에는 그림 그리기 대회 상금 전액으로 보온 병을 구입해 같은 병동 환아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다.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표현의 즐거움을 깊이 느꼈고, 과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은 자연스럽게 ‘러닝 디자인(LDIT)’ 공부로 이어졌다.

“미술을 배우며 채워지는 기쁨을 느꼈어요. 이제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한별 님에게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병원을 다니면서 당연하다고 믿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 가족과 밥 먹는 것 같은 당연한 일들이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가족은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는 아버지와 둘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를 견뎠다.

“그때는 짧더라도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시간을 채우다

어린 시절 병원은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하얀 벽, 하얀 이불, 환자복까지 모두 하얀색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무섭고 외롭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어느 순간 병원을 ‘빈 도화지’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도 결국 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채울 공간이 생겼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은 지금 자신의 감정과 추억이 쌓인 시간이 되었다.

“지금 병원을 떠올리면 오래된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 보는 느낌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당시 의료진과 가족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태도 역시 큰 힘이 되었다.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도 늘 웃어 주셨어요. 같은 상황이어도 웃으면서 보내면 정말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배움으로 가득한 삶을 향해

소아백혈병을 겪었던 시간은 배움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 놓았다.

“아프기 전에는 공부가 싫었는데 병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병실에서 스마트폰 영상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며 ‘배움 속으로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공부하려는 러닝 디자인 역시 그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정말 잘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이식 이후의 삶은 새롭게 받은 삶 같아요. 앞으로도 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UOM



2014년 9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했던 이한별 님의 그림



창(窓), 다시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

병원에는 수많은 창이 있다. 복도의 창, 병실의 창, 외래 대기실의 창. 그러나 같은 창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사물이 된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창은 풍경을 담은 액자에 지나지 않지만,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다가선 노인에게 그것은 세계와의 재회를 알리는 문이다.

창(窓)이라는 한자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드러난다. 지붕 모양을 본떠 만든 ‘집 면(또는 ‘갓머리’, ‘宀’) 아래에 ‘마음 심(心)’과 ‘창 창(窗)’이 겹쳐 있다. 집 안에 갇힌 마음이 바깥을 내다보는 통로, 그것이 창(窓)의 본뜻이다. 영어의 window 역시 고대 노르드어 vindauga, 즉 ‘바람의 눈(wind-eye)’에서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안과 밖을 잇는 감각의 통로로 이해되어 왔다. 벽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구조물이라면, 창은 그 보호를 유지한 채 세상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축적 의지의 산물이다.

몇 해 전 노인병내과 병동에서 만난 여든네 살의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오랫동안 심부전을 앓아온 그분은 숨이 차고 몸이 붓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병실 창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 번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지 않았다. 커튼을 열어드리면 도리어 눈을 감았다.

“볼 것도 없는데 뭘.”

그것이 할아버지의 대답이었다. 노인의학에서 우리는 이런 무관심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다.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의 소실은 노쇠의 중요한 징후 중 하나이며 회복 의지의 저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창 너머의 세상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건축학자 로저 울리히는 198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유명한 연구에서 수술 후 병실 창으로 나무가 보이는 환자가 벽돌담만 보이는 환자보다 입원 기간이 짧고 진통제 사용량이 적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 연구 이후 ‘치유 환경(healing environment)’이라는 개념이 의료 건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창이 노인 환자에게 주는 의미가 자연 경관의 치유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은 노인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시계이자 계절의 변화를 전해주는 달력이며 무엇보다 ‘바깥에 여전히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봄날 아침, 병실 창 바로 앞 목련나무에 꽃이 피었다. 간호사가 커튼을 열자 햇살과 함께 흰 꽃잎이 창 가득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다.

“어, 벌써 목련이 피었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이 회복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어달라고 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국물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어하던 분이 반찬까지 드시게 되었다. 며칠 뒤에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윽고 병실 안을 천천히 걷는 운동을 스스로 시작했고, 목련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질 무렵에는 복도 끝까지 걸어 다녀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부전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과 영양은 약만큼이나 중요한 치료인데 그 동기가 처방전이 아니라 창 너머의 봄에서 왔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노인의학을 하면서 나는 환자의 회복이 언제나 약과 수술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노쇠한 노인에게 회복이란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일이다. 오래 앓은 노인들은 점차 자신의 세계를 좁혀간다. 침대가 온 세상이 되고, 천장이 하늘이 된다. 그 닫힌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 단혔던 커튼을 여는 것, 그래서 바깥의 빛과 소리와 냄새가 다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창 의미이고 노인 환자 회복의 첫걸음이다.

창은 벽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벽의 부정이다. 벽이 단절을 말할 때 창은 연결을 속삭인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긴 투병 끝에 기력이 쇠한 노인의 곁에서 창은 가장 조용하고 겸손한 치료자가 된다. 창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거기 있을 뿐이다. 환자가 고개를 돌릴 준비가 되었을 때 창은 비로소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 창은 더 이상 창이 아니라 문이 된다. 다시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위한 조용한 문.

지금도 어느 병실에서는 한 어르신이 창가에 누워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회복은 더디고, 어떤 날은 어제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오늘 창밖의 빛 한 줄을 마주하신 그 시선이, 한 숟갈의 식사가, 침대 옆 한 걸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회복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도약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천천히 쌓여 만들어지는 길이다. 그리고 그 걸을 지키시는 가족들께도 말씀드리고 싶다. 어르신의 침묵이 길어질 때, 식사가 줄어들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커튼을 열어드리는 일, 창밖의 계절을 함께 이야기해 드리는 일,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가 처방하는 어떤 약보다 깊은 치유가 되곤 한다. 창이 늘 거기에 있듯이 회복의 가능성도 늘 거기에 있다. 다시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혼자 내딛는 것이 아니다. UOM

최정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에서 고령 환자를 진료하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인 ‘노쇠’와 ‘근감소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노인포괄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를 바탕으로 인지 기능, 신체 기능, 우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약물 복용 등 노년기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섬망과 낙상 등 노인 증후군 예방과 환자의 독립적인 삶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노인의학 분야의 임상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모험을 과학이라 부른다

보스턴에서 꾸는 HIV 완치의 꿈

오감으로 우주를 탐험하는 인간, 그 모험의 현장에서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65 Landsdowne Street. 제가 매일 아침 발걸음을 옮기는 하버드 의과대학 Brigham and Women's Hospital 감염내과 Jonathan Li 실험실 건물 현관에는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Edwin Hubble)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감으로 우주를 탐험하는 인간은
그 모험을 과학이라 부른다.”

그 아래에는 이곳에서 일생을 헌신한 과학자들을 향한 존경의 헌사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출퇴근 셔들을 기다리다 문득 이 문구들을 마주할 때면 저 또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 정복을 위한 거대한 모험의 한 줄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책임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까다로운 바이러스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여정은 우주를 탐험하는 일만큼이나 치열하고 숭고한 과정임을 매 순간 실감하곤 합니다.



65 Landsdowne Street 현관에 새겨진 허블의 명언



하버드 의과대학 Brigham and Women's Hospital 안내판

전 세계 희망이 모이는 HIV 연구의 심장부

Jonathan Li 실험실은 HIV 완치 연구의 핵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에이즈 임상시험 그룹(ACTG, AIDS Clinical Trials Group) 코호트 연구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지속 바이러스혈증(Nonsuppressible Viremia)' 파트에 참여하여 바이러스 저장소(Viral Reservoir)를 분석하고 자가중화항체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냉동고를 열 때마다 저는 매번 압도적인 연구 인프라의 힘을 실감합니다. 근처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은 물론이고 멀리 앨라배마(Alabama)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심지어 대서양 너머 유럽에서 액체 질소 탱크에 실려 온 수많은 샘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와 국경을 초월해 모인 귀한 시료들은 분석 대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환자들의 희망이 담긴 샘플들이 'HIV 정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모이는 과정에서 협업(Collaboration)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해외 연수는 대한민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완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강창경 감염내과 교수의 '과학적 모험'을 전한다. 척박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느낀 연구 인프라의 힘과 수평적 소통이 빚어낸 혁신의 현장을 함께 조망한다.

수평적 소통과 열린 문화가 만드는 혁신의 동력

HIV 완치 연구의 최전선에서 이론 학문적 성취만큼이나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이곳만의 독특한 연구 문화였습니다. 지도 교수인 Jonathan Li는 매주 자신의 모든 일정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덕분에 연구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각자 필요한 시간에 개인 혹은 그룹 미팅을 자유롭게 신청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매주 열리는 랩 미팅은 이곳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랩 테크니션(Lab Technician)부터 학위 과정 학생, 리서치 사이언티스트(Research Scientist)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직위와 상관없이 치열하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 방식이 탄탄한 인프라와 결합할 때 비로소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야로 그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미래

이번 연수는 저 개인의 학술적 성장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의 환기를 통해 연구자로서 초심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적인 연구 시스템과 유연한 문화를 우리 감염내과, 나아가 서울대학교병원의 발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기분 좋은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보스턴에서의 '과학적 모험'을 무사히 마친 뒤, 한층 넓어진 시야와 뜨거운 열정을 품고 복귀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할 우리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이곳에서의 경험이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UOM

강창경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HIV/AIDS, 바이러스 질환, 원인 불명 열성 질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면역학적 특성과 유전적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며 감염질환 분야의 학술적 위상을 높여왔다.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료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랩 미팅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Jonathan Li 실험실 동료들과 함께한 랩 파티



AI가 영상을 읽고, 임상을 추론하는 시대

서울대학교병원이 선보인 두 가지 의료 AI 모델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X선 사진 한 장에는 폐의 상태, 심장의 크기, 흉수의 유무 등 수많은 임상 정보가 응축되어 있다. 숙련된 영상학과 전문의는 이 찰나의 이미지를 분석해 정교한 판독 리포트를 작성한다. 만약 AI가 이 사진을 직접 읽고 리포트 초안을 작성해준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 또 다른 AI가 환자의 증상과 검사 수치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명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준다면?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HARI)과 Medical Vision Lab이 최근 공개한 mvl-rrg-1.0과 hari-q2.5-thinking은 이 질문에 대한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mvl-rrg-1.0

흉부 X선을 ‘읽고’ 리포트를 쓰는 AI : mvl-rrg-1.0

흉부 X선(CXR, Chest X-ray)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영상 검사 중 하나입니다. 폐렴, 심장비대, 흉수(폐 주변에 물이 차는 것), 기흉(폐에 공기가 새는 것) 등 다양한 질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mvl-rrg-1.0은 이 영상을 입력받아 영상 의학과 판독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모델입니다. ‘이상 이 있다/없다’를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쓰이는 ‘소견(Findings)’과 ‘결론(Conclusion)’ 형식에 맞춰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이 모델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영상 속에서 ‘시간’을 읽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AI 분석이 현재 찍힌 사진 한 장만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면, mvl-rrg-1.0은 환자의 과거 기록을 호출해 오늘

찍은 사진과 비교 분석합니다. ‘지난달에 비해 흉수가 늘어났다’거나 ‘이전에 관찰되던 폐 음영이 호전되었다’는 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 경과를 추적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의사가 정면(PA)과 측면(Lateral) 사진을 동시에 놓고 입체적으로 판단하듯, AI 역시 여러 각도의 정보를 통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 성능 평가에서도 기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델들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변화를 추적하는 ‘시계열 평가’에서 mvl-rrg-1.0은 79.9%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기존 모델(54.8%) 대비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영상 하나를 잘 읽는 수준을 넘어 환자의 전체적인 경과를 이해하는 AI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AI :

hari-q2.5-thinking

“60세 남성 환자가 복통과 발열을 호소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고, 오른쪽 아랫배를 누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압통이 확인됩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증상, 검사 수치, 통증 부위라는 개별 단서들을 종합하여 ‘급성 충수염(맹장염)’이라는 결론을 가장 먼저 도출해낼 것입니다. hari-q2.5-thinking은 바로 이러한 의사의 ‘임상적 추론’ 과정을 수행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된 AI 언어 모델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지원하는 이 모델은 실제 평가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의사 국가고시(KMLE) 수준의 문제에서 약 89%의 정답률을 기록했으며,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에서도 88%가 넘는 정답률을 보이며 수준 높은 임상 지식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AI가 의학 용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임상 상황에서 핵심 단서들을 연결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AI는 의사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진료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디지털 조력자’로 설계되었습니다. 바쁜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진단 가능성을 환기하거나 의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며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고

복잡한 진료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에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7개 진료과별 특화 모델로 기능을 확장하며 더욱 정밀한 맞춤형 의료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와 의료진, 함께 여는 미래 진료의 문

현재 공개된 두 모델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 처리된 공개 데이터만을 활용해 학습되었으며, 지금은 실제 임상 적용이 아닌 연구 및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의료 AI가 진료 현장에서 공식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도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훨씬 더 엄밀하고 까다로운 임상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가 복잡한 영상을 읽어내고 환자의 증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은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진료의 정확도를 더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의사와 AI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따뜻한 시선과 AI의 정밀한 기술이 만날 때 의료의 질은 비로소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UOM



김영곤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의료영상 담당교수(융합의학과 교수)

김영곤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Medical AI)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Medical Vision Lab(MVL)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흉부 X선 판독 리포트 생성 모델 등을 공개하며 국내외 의료 AI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데이터 속에 숨겨진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에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현훈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생체신호 담당교수(융합의학과 교수)

이현훈 교수는 초거대 언어모델(LLM) 기반의 임상 추론 및 지능형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 단서들을 연결해 진단을 도출하는 ‘hari-q2.5-thinking’ 모델 개발을 주도하며, AI가 의사국가고시 수준의 고차원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현재 17개 진료과별 특화 모델 확장과 보험청구 자동화 시스템인 ‘Claim.AI’ 구현에 매진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행정적 부담을 덜고 본질적인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디지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B O N E

M A O W

T B N S

P T

R K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합병증, '이식 전' 예측 가능성 열다

홍경택·강형진, 한도현 교수 연구팀
(소아청소년과, 융합의학과)

조혈모세포이식은 소아 혈액암과 희귀질환 환아들에게 마지막 보루와 같은 치료법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특히 간정맥폐쇄질환(VOD)은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명적 합병증이다. 홍경택·강형진, 한도현 교수 연구팀은 조혈모세포이식 전 환자의 혈액 속 단백질 패턴을 분석해 어떤 환자에게 VOD 위험이 높은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Q. 간정맥폐쇄질환(VOD)은 어떤 병이며, 왜 예측이 중요한가요?

조혈모세포이식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만큼 혹독하고 위험합니다. 늘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넘기느냐'가 숙제죠. 문제는 이식 전 쓰는 강한 항암제와 방사선 때문에 간정맥 폐쇄질환(VOD)이 20% 전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성인보다 소아에게 더 자주 생기고, 중증은 사망률이 70%에 육박해요.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니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아이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떤 아이는 심하게 앓더라고요. 이식 전 단계에서 위험한 아이들을 미리 선별해 선제적으로 예방 치료를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Q. 이번에 활용하신 '단백체 분석(프로테오믹스*)'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연구자라기보다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보는 게 가장 즐거운 의사입니다. 미해결 과제를 풀려고 공부하다 접하게 되었죠. 단백질 분석은 몸 안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방식입니다. 기존 평가는 이미 알려진 몇몇 단백질만 관찰했다면, 이번에는 혈액 속 단백질 패턴을 폭넓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 치료 전부터 환자마다 단백질 패턴이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때 '부살판'이라는 약제를 쓴 환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을 투여하기 전인 '치료 전 단계'인데도 향후 VOD가 발생할 환자군과 그렇지 않을 환자군 사이에 단백질 패턴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강한 약물 때문이 아니라 환자가 원래 몸속에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 취약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든 이전 치료로 축적된 데미지이든, 어떤 아이들은 시작 전부터 이미 이 합병증에 취약한 상태였다든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Q. 핵심 지표로 발견된 GCLC와 FBP1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다행히 이번에 발견된 두 단백질은 의학적 의미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GCLC는 간의 독소 해독 기능과 직결되어 있고, FBP1은 간의 혈당 조절 기능과 연관이 깊습니다. VOD 합병증이 발생한 아이들은 이식 전부터 이 두 단백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간의 해독 능력이나 대사 기능 측면의 취약성이 이미 혈액 속 단백질 신호로 나타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Q. 예측 표지자를 5개까지 압축하셨는데, 임상 실용성을 고려한 결과인가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병원에서 쓰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식을 앞둔 모든 아이에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 전체 단백질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혈액검사처럼 몇 가지 핵심 단백질만 골라내어 신속하게 예측해야 실용성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지자를 5개까지 압축했고 개수를 대폭 줄였음에도 높은 예측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가 더 발전해 이식 전 간단한 스크리닝 검사로 정착된다면 합병증 발생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Q.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현장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시나요?

제가 전공의 시절 청진기를 들고 다닐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이식 수술은 정말 몰라보게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예기치 못한 합병증들이 고개를 들고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논문 한 편으로 큰 변화가 생긴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 수많은 의료진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 곁을 지키는 의사이자 문제를 풀어가는 연구자로서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제 몫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세포나 혈액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전체(단백체)'를 펼쳐놓고 구조와 기능, 변형 패턴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정밀 분자생물학 연구 기법

임신 중 고혈압, 출산 후 심혈관 건강을 살피는 신호

박준빈·곽순구 교수 연구팀 (순환기내과)

Q. 임신 중 혈압 문제가 출산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는 출산 후 혈압이 한동안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가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심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임신 중 고혈압을 임신 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합병증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자간증 중심의 연구는 많았지만, 임신 중 고혈압 질환 전체를 세부 유형별로 나누어 장기 심혈관 위험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고혈압의 종류에 따라 이후 심혈관질환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산후 관리 방향에 도움이 될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Q. 국내 57만여 명을 분석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별점은 ‘규모’와 ‘세밀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국내 출산 여성 57만 843명을 분석했고, 출산 후 최대 12년까지, 중앙값 기준 6.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교적 드문 심혈관 사건의 양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을 만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 중첩 전자간증*, 전자간증·자간증, 분류되지 않은 고혈압(불특정 고혈압)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나이, 대사 위험인자, 생활 습관, 임신 관련 요인 등을 폭넓게 보정해 유형별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 연구 결과, 임신 중 고혈압을 겪은 여성에서 장기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출산이 끝났다고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을 겪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후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1.62배 높았습니다. 이는 임신 중 혈압 이상이 산모의 혈관 건강이나 대사 상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연구이므로 임신 중 고혈압이 이후 심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신 중 혈압 이상을 산후 심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임신 중 혈압이 오르면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박준빈·곽순구 교수 연구팀은 57만여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통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임신 중 고혈압을 겪은 여성은 출산 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준빈 교수를 만나 임신 중 고혈압을 겪은 여성에게 어떤 산후 심혈관 관리가 필요한지 들어보았다.

Q. 특히 기존 고혈압에 전자간증이 겹친 ‘중첩 전자간증’에서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특히 눈에 띄는 결과였습니다. ‘중첩 전자간증’에서는 임신 중 고혈압이 없던 여성에 비해 장기 심혈관질환 위험이 약 3배 높아 5가지 유형 중 가장 높았습니다. 기존의 혈관 부담 위에 임신과 관련된 변화가 더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던 여성, 특히 중첩 전자간증을 겪은 여성은 출산 후에도 이른 시점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생활습관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질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도 달랐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부전과 뇌졸중 위험은 다섯 가지 모든 유형에서 높았지만, 심근경색과 심방세동은 일부 유형에서만 뚜렷했습니다. 이는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이 하나의 단일한 상태가 아니라 유형마다 이후 심혈관 위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만성 고혈압은 임신 전부터 이어진 혈압 부담과, 전자간증은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즉 혈관 안쪽 벽의 기능 이상과 더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어떤 유형이었는지까지 고려해 산후 추적관찰과 예방 전략을 더 맞춤형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Q. 임신 중 혈압 문제로 불안해하는 산모와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 혈압 문제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후 심혈관질환을 겪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경험을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은 관리의 끝이 아니라 산모 자신의 건강을 다시 점검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산과와 내과가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해 혈압과 생활습관을 꾸준히 살피면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UOM

* 중첩 전자간증(Superimposed Preeclampsia): 임신 전부터 만성 고혈압이 있던 여성에게 임신 중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이 추가로 생긴 경우

P R E G
N A C Y
H Y E R
T E N
S I L



소방 특화의료에서 지역 공공의료까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국립소방병원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먼저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 이제는 국가가 그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 지난 6월 8일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을 정식 개원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을 맡아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 시스템을 갖추었다. 소방 특화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함께 아우르며 새로운 의료체계를 제공하는 국립소방병원. 그 의미 있는 시작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소방 의학의 시작, 국립소방병원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 9천㎡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총 19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화상·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분야를 특성화했다.

이곳은 화재와 구조, 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소방 특화 의료서비스와 관련 질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병원으로 운영된다. 특히 화상센터, 통합재활센터, 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4대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예방·치료·재활·복귀를 연결하는 소방 특화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형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충북 중부권의 응급·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도 함께 맡게 된다.

공식적인 첫 행보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현판식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병원은 정식 개원에 앞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적인 시범 진료에 들어갔다. 광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은 “지난해 현판식과 함께 1호 환자 진료가 시작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소방공무원이 첫 환자로 병원을 찾았다는 점에서 국립소방병원이 실제 역할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시범 진료는 지난해 재활의학과 외래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소방공무원과 가족을 우선 대상으로 진료했다. 이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병원 시스템과 진료 프로세스, 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또한 병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와 진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어 6월에는 입

원실과 수술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종합병원으로서의 체계를 완벽히 갖추게 되었다.

최고 수준 의료의 결합, 서울대학교병원 시스템을 이식하다

국립소방병원 운영의 핵심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경영 전반을 위탁 받아 의료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는 점이다. 소방 특화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원 준비 단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직접 참여했으며 진료 프로세스와 의료 장비, 정보 시스템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교수진과 실무진이 초기부터 깊숙이 참여해 진료 범위와 운영 방향, 의료장비 도입,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왔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 산하에 개원준비위원회와 정보화 TF를 구성하여 병원정보시스템과 전산 체계의 안정화 작업을 구체화했다. 덕분에 내부 전산은 서울대학교병원 그룹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파견 의료진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광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국립소방병원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방병원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을 쏟았다”라고 설명했다.

개원 초기 의료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부 필수 진료과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이 순환 파견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원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전경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소방 특화 의료서비스와 관련 질환 연구를 수행한다.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검사실
첨단 장비와 4대 특성화센터를 기반으로 예방·치료·재활·복귀를 연결하는 소방 특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소방병원 입구 로비
넓고 개방적인 공간에 안내데스크와 대기공간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맞이한다.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필요한 의료를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

국립소방병원의 정식 개원을 맞아해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을 만나 병원이 갖는 의료적 의의를 짚어보았다.
소방 특화 진료의 표준화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거점 구축까지,
그가 전하는 병원의 핵심 역할과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Q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요?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제복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특화된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해야 했습니다. 이제 국립소방병원을 통해 직업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위탁 운영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선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식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은 이제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 재활, 정신건강 등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고난도 전문 진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특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을 맡는 것이 병원의 빠른 안착과 신뢰 확보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가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선도해 온 서울대학교병원의 비전과도 상호 일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방 특화 의료의 표준화'를 이루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Q 소방의학 연구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립소방병원은 '대한민국 소방의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유해 물질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업병 인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 인프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 데이터 처리 기술과 국립소방병원이 현장에서 축적해 나갈 소방 특화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소방의학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Q 충북 중부권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사업과 공공의료사업을 동시에 펼치게 됩니다. 먼저 응급의료사업을 위해 24시간 언제나 신속하게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응급환자와 중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켜냄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공공의료사업으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과 함께 헬기를 통한 중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부터 지자체 연계 통합돌봄사업까지 아우를 예정입니다. 주민 곁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Q 국립소방병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계별 확장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선 2030년까지 현재 19개인 진료과목을 24개로 확대하고, 운영 안정화 시기에 맞춰 현재 302병상인 규모를 700병상 규모로 대폭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방 특화 진료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지역 내에서 모든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둘째로 병원 부지 내에 첨단 연구 및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현장 대원들을 위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의 요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소방 특화 의료의 표준화'를 이루고, '공공의료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정밀 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전국 공공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립한 의료 지침과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해외 의료진이 연수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세계 소방의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UOM

모두의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발전기금은 병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자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를 살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제증원서재의 책 한 권, 휠체어 한 대처럼
 병원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후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작은 나눔을 모아 환자 중심의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 여러분의 쉽고 간편한 후원회원 가입을 위해
 온라인 후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발전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상단에서 '온라인 후원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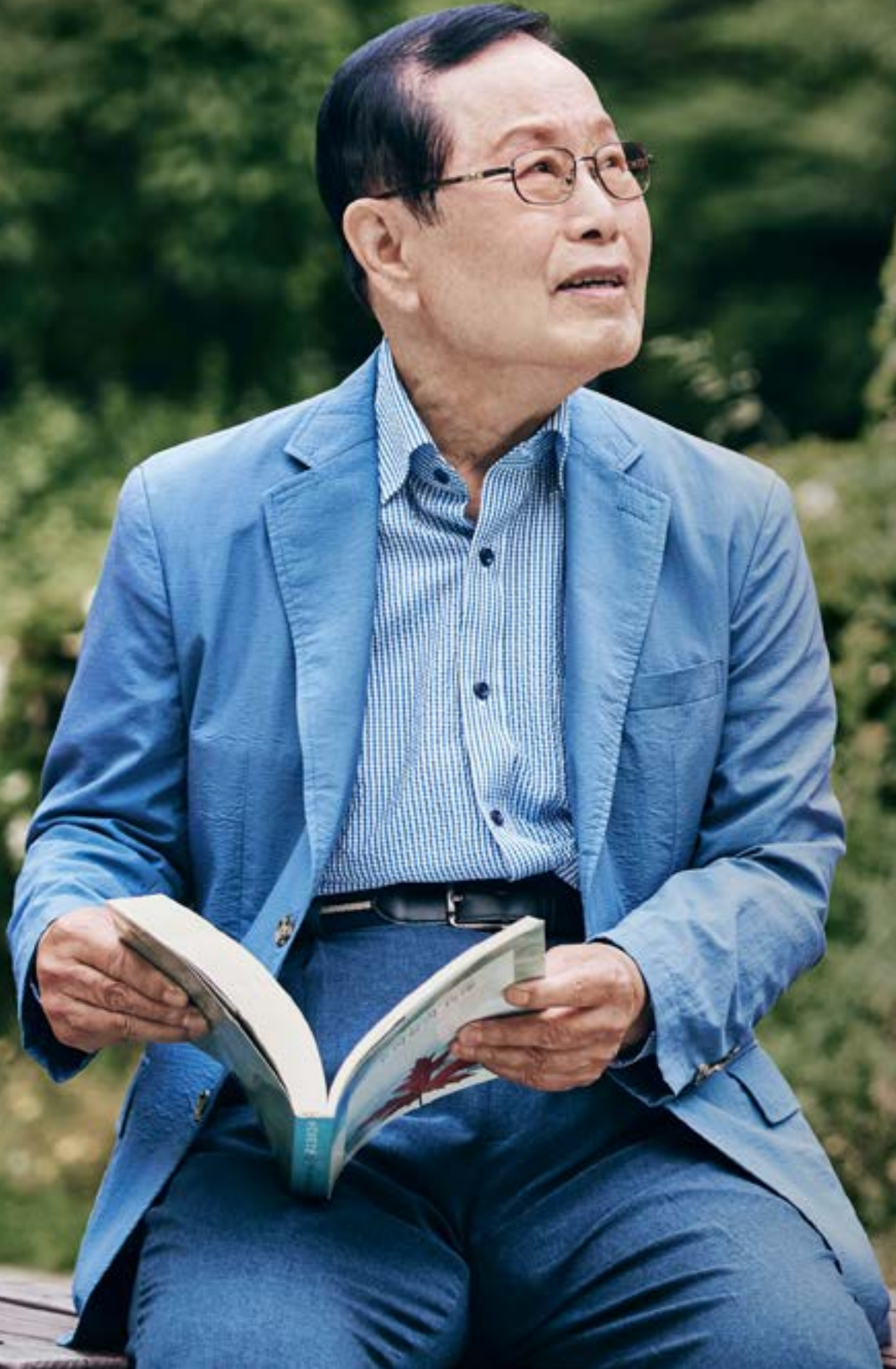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후원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래 간직한 고마움을 나눔으로 전하고 싶어요

송익선 후원인



어린 시절 같은 교정을 누비던 친구처럼 송익선 후원인에게 서울대학교병원은 긴 시간 신뢰와 기억이 쌓인 각별한 공간이다. 오랜 인연과 삶의 경험을 지나온 그는 “그동안 받았던 감사했던 시간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고요한 미소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더 많은 환자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깊은 진심이 머물러 있었다.

오래된 친구, 잊을 수 없는 인연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고요한 자택에서 만난 송익선 후원인은 인터뷰 내내 ‘친구’라는 단어를 입가에 올렸다.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찬일 교수와의 인연은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세월이 흐르는데도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이 다녔어요. 대학은 달랐지만 이 친구와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오랜 벗과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나누던 대화, 함께 필드를 거닐던 평범한 일상은 그 자체로 충만한 신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송익선 후원인에게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보낸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요즘 들어 지나온 시간을 자주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누군가와 맺어온 인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 병원을 통해 느꼈던 신뢰와 고마움은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 마음들을 혼자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오랜 인연을 소중히 품고 그 기억을 나눔으로 이어가는 송익선 후원인의 모습에서 삶을 대하는 겸허하고도 단단한 태도가 느껴졌다.

세월을 품고 자라나는 작은 나무들

집 베란다에는 그가 오랜 시간 정성으로 보듬어온 분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작은 화분 안에서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제 모양을 갖춰가는 나무들은 어딘가 모르게 주인의 모습과 닮았다.

“옛날에는 운동이라면 뭐든 좋아했어요. 테니스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학창 시절에는 체육부장까지 맡을 정도로 활동적이었으니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의 눈빛과 손짓에 다시금 생동감이 감돌았다.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겼던 청년은 시간이 흘러 이제 고요한 하루의 소중함을 아는 노년이 되었다.

“이제는 분재를 가꾸며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분재를 그토록 아끼는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분재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농담처럼 던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사람 사이에서 겪었던 수많은 회로애락이 응축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경쟁과 갈등 속에서 느꼈던 서운함도, 사람 간의 미묘한 거리를 겪으며 마음을 다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분재는 오랜 공을 들여 천천히 돌보는 만큼 딱 그 시간만큼의 정직한 모습으로 자라난다. 조금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하며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오래도록 바라봐야 하는 작업. 송익선 후원인은 그런 시간들이 비로소 자신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인연 역시 이 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렸다. 병원을 오가며 의료진에게 느꼈던 두터운 신뢰와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인 박찬일 교수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이 병원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졌다. 송익선 후원인은 발전기금을 전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살아오며 받은 고마운 마음을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살아 있는 동안 좋은 일 하나는 꼭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거든요.”

그의 말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오히려 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후원을 대단한 선행으로 치장하기보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당연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이 앞으로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곳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그는 결국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성공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했던 마음, 그리고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되돌려주려는 따뜻한 의지가 삶을 비로소 완성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사진 촬영을 이어갔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던 그는 나지막이 말 한마디를 건넸다. “나이가 들면 혼자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는 이미 긴 시간을 지나오며 만남과 이별, 건강과 노년이라는 삶의 필연적인 변화들을 충분히 겪어낸 사람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남겨진 시간들을 조용히 껴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전한 후원은 그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자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그만의 방식이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좋은 마음 하나는 꼭 남기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위대한 바람. 그리고 그 마음은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또 다른 환자의 회복과 희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건디며 자신만의 형태를 빚어가는 한 점의 분재처럼 송익선 후원인의 나눔도 그렇게 조용하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UOM



“병원이라는 곳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Spot 1

병원 속 작은 도서관, 제증원서재

글. 문예은 사진. 황필주(79Studio)



병원이 물리적인 치유를 위한 공간이라면 도서관은 마음의 치유를 위한 공간이다.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지치기 쉬운 이들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제중원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선물하고자 하는 뜻이 모여 탄생한 공간이다.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

병원계 최초의 병원도서관 제중원서재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별관 4층에 ‘교양도서실’이 마련되었다. 지치고 힘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문을 연 교양도서실은 교직원과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로 채워졌다.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책 한 권은 위로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도서실을 드나들며 위로와 웃음, 용기를 얻었다. 교양도서실은 2012년 ‘함춘서재’로 이름을 바꾸면서 본관 1층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한층 넓어진 공간에 편안한 의자를 두어 누구라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꾸몄다. 현재 병원도서관은 ‘제중원서재’라는 이름으로 본관 2층에 자리하고 있다. 평범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책이 빼곡하게 꽂힌 서가가 나타난다. 기증도서뿐 아니라 매월 새롭게 구입한 신규 도서들이 서가를 채우고 있다. 서가를 채운 책들은 장르를 넘나든다. 문학은 물론 인문, 사회과학, 역사, 동화, 만화, 경제 등 다채롭다. 다양한 장르만큼이나 제중원서재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저마다 다르다. 병원에 머무는 이유도, 나이도, 성별도 다른 이들이 ‘책’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제중원서재에 모여든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

제중원서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방학이 되면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환아들이 늘어난다. 자주 보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인다. 주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아 중 한 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원 중에는 매일 책을 바꿔가며 읽을 정도의 애독자였다. 수술 후 경과가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아 걱정이 깊어지던 차에, 아이는 다시 밝은 얼굴로 제중원서재에 찾았다. 퇴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제중원서재를 둘러보는 짧은 시간에도 책을 반납하고 빌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방문했다. 시리즈물의 앞권을 반납하고 이어지는 책을 빌려가기도 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는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새로 들어온 책을 안내했다. 지난번에 추천해준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보호자의 말에는 얼굴이 한껏 밝아졌다. 헤어질 때 우리는 “다음에 보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곳 제중원서재에서는 “다음에는 최대한 늦게 보자”는 말로 그 인사를 대신한다. 병원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작은 관심이 더 풍성한 서가를 만듭니다”

신민경 자원봉사자

현재 제중원서재에서 도서 반납함에 들어온 책을 정리하고 도서 대출 및 반납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외래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쾌적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서가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만큼이나 정서적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중원서재를 통해 어린 환아들에게 병원이 지루하고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어 기쁩니다. 다만 기증 도서에 더해 매년 새롭고 알찬 신간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 후원금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앞으로도 제중원서재에 기부 손길이 이어져 많은 분이 더 다양하고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Spot 2

서울대학교병원의 얼굴, 휠체어 대여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 차에서 내린 보호자가 익숙하다는 듯 현관 옆 휠체어 대여소로 향한다. “휠체어를 빌리려고요.” 그 말에 직원이 능숙하게 휠체어를 꺼낸다. 새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휠체어에 환자가 조심스레 몸을 싣는다. “고맙습니다.” 작은 인사가 오가고 바퀴 네 개가 병원 안으로 천천히 굴러간다. 휠체어 대여소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얼굴이다.



환자의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정문 앞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무상 휠체어 대여소(이하 휠체어 대여소)’가 있다. 하루 평균 서울대학교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휠체어 대여소에서 관리 중인 휠체어는 214대에 불과하다. 개인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도 있지만, 대여가 필요한 환자 역시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휠체어가 필요한 환자가 대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여한 휠체어가 언제 반납될 지는 알 수 없다. 한 명의 기다림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거조가 나선다. 그들은 원내 곳곳에 두고 간 휠체어를 찾아 수거한다.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수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휠체어 대여소는 부품 교체와 수리를 반복하며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이 가운데 2012년부터 사용된 휠체어만 30대에 달한다. 내구연한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사용한 만큼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휠체어는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꾸준히 교체하고 있지만, 전체 수량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

더 많은 휠체어를 기다리며

일반 수동 휠체어와 달리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거상형 휠체어는 총 4대뿐이다. 서울대학교병원 특성상 중증 환자의 방문이 많은 만큼 일반 휠체어는 물론 거상형 휠체어 역시 증설이 필요하다. 휠체어 대여소에서는 보유 휠체어 수를 300대 수준으로 유지할 수만 있어도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휠체어 대여소는 중증 환자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얼굴이자, 서울대학교병원 곳곳을 불편 없이 누빌 수 있도록 돕는 친구다. 그 소중함을 알기에 휠체어 대여소를 담당하는 단기 주차팀의 얼굴은 밝다. 장애가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단기 주차팀은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한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휠체어 대여소는 바쁘게 움직인다. 이들의 소망은 하나다.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는 것이다. 더 많은 새 휠체어가 마련되어 환자들에게 한층 편안한 병원 경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UOM

“새 휠체어 한 대가 환자의 기다림을 줄입니다”

총무과 심의호 직원

5년째 휠체어 대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의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와 보호자를 마주하며 휠체어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빌리러 오셨는데 모두 대여 중이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매일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파손이 잦은데요, 특히 뒷바퀴의 파손이 많고, 타이어도 금방 닳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휠체어를 제때 교체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늘 필요합니다. 기부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간이식 3,000례 달성
고위험 환자 중심 치료 성과**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 이후 38년 만인 지난 1월 5일 누적 간이식 3,000례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진행성 간세포암, 말기 간경화, 고령·중증 동반 질환 환자 등 고위험 환자가 다수 포함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학제 협진과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치료 성적을 유지해 왔으며, 최소 침습 간이식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모든 생체 간이식 공여자 수술을 복강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진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간이식 슬기 표준을 확산하고 있다.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확장 개소
전 주기 원스톱 플랫폼 본격 가동**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가 2월 26일 CMI 지하 1층에 첨단바이오 제조소 확장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거행했다. 이번 확장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전용 제조시설과 첨단 분석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적용, 치료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했다. 센터는 앞으로 첨단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 환경을 고도화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 의료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파워 26년 연속 1위 달성**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6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인지도,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종합병원 부문 2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헬스케어AI연구원과 'SNUH AI'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 치료, 장기이식, 로봇수술 등 고난도 의료와 글로벌 R&D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배곧서울대병원, 국립소방병원, 가장 중입자치료센터 건립을 통해 미래 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본원·소아 수술실 확장 운영으로
수술 역량 강화 기반 마련**

본원 및 소아 수술실이 3월 3일부터 전면 확장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6년부터 수술장 리모델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 4월 성인 41개, 소아 11개 등 총 52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마쳤다. 다만 의정상태의 영향으로 수술실 일부가 축소 운영해 왔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확대해 올해 3월부터 증설된 수술실을 전면 가동하게 되었다. 이번 확장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술 환경을 구축하고 고난도 수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근현대 의학교육사 조명한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

의학역사문화원이 주최한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가 4월 3일에 열렸다. 올해 강좌에서는 한국 근현대 의학교육의 역사를 주제로 총 4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발표는 제중원 설립 주역인 호러스 알렌의 역할과 한계, 식민지 시기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입학 경쟁과 학내 갈등,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의곡·강좌제 형성 과정, 해방 직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실 편성과 교수진 변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제중원의 정신과 의과대학과 병원 초창기 역사를 함께 되짚으며 그 학술적 의미를 공유했다.



**청각약자 맞춤형 소통을 위한
스마트 히어링루프 시스템 구축**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스마트 히어링루프' 시스템을 구축했다. 히어링루프는 주변 소음을 줄이고 화자의 말소리를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직접 전달하는 무선 보조 장비다. 환자 동선과 소음 정도를 고려해 소아·성인 이비인후과 진료실, 설명간호사실, 대한외래 원무서비스센터, 암병원 서성환홀 등 5곳에 총 8대를 설치했다. 이번 도입으로 진료 상담과 안내 청취, 강당 행사 등에서 난청 환자의 정보 접근성과 의료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암 연구 경쟁력 국내 1위
글로벌 연구 경쟁력 입증**

‘네이처 인덱스 2026 암: 선도적인 200대 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내 1위(세계 67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기관별 암 연구 기여도와 연구 성과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암 연구 기여도 35.73, 관련 논문 231편을 기록하며 국내 선두에 올랐다. 이번 성과는 AI 기반 정밀 의료, 세계적 수준의 항암제 임상시험 역량, CAR-T 등 차세대 세포 치료 연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앞으로도 암 치료와 연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뇌-신경과학 혁신 포럼,
뇌 연구 협력 방안 논의**

서울대학교병원 뇌은행은 지난 4월 3일 ‘2026 아시아 뇌-신경과학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뇌은행 관계자와 병원·학계, 제약·바이오·시 산업계 전문가 약 200명이 참석해 아시아 뇌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구권 중심의 기존 뇌 연구 데이터의 한계를 짚고 아시아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정산 뇌 기준 데이터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각 기관의 샘플을 활용해 상호 비교 가능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정밀의학·바이오마커·AI 기반 뇌 질환 연구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서울대학교병원 제20대 병원장
백남종 재활의학과 교수 임명**

서울대학교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남종 교수(재활의학과)가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6년 5월 13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백남종 신임 병원장은 2001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했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사업단장, 병원장 등을 거치며 병원 경영과 행정 경험을 쌓았다. 또한 뇌졸중 기능회복과 신경조절 기술을 연구해 온 신경재활 분야 권위자로,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강화와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척수이형성증 환자·보호자와 함께한
온드림 가족 캠프 개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척수이형성증 클리닉팀이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척수이형성증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온드림 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병원이 주관하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했으며,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질환 이해와 일상 속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좌는 재활운동 원칙, 신경인성 방광의 이해와 치료, 척수이형성증과 함께 살아가기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다학제 통합 환자상담과 보호자 간 소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아에 전한 웃음 선물
어린이날 맞이 대잔치 개최**

지난 4월 30일 ‘2026 어린이날 맞이 대잔치’를 열고 입원 환아와 외래 방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올해 행사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미션을 수행한 뒤 캡슐토이를 뽑는 뽑기존과 뽀로로와 친구들이 함께한 싱어송쇼, 팬사인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성주 후원인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치료 중인 아이들이 병원 안에서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앞으로도 환아가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1형당뇨병 환아·가족과 함께한
소아청소년당뇨병 가족캠프 개최**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이 5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병원인재원에서 ‘제16회 소아청소년당뇨병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윤재경 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1형당뇨병 환아와 가족, 의료진, 청년 자원봉사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1형당뇨병 관리 강의와 가족운동회, 연령별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경험 공유와 교류를 통해 가족들이 질환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시이 마련되었다.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은 앞으로도 교육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암 최신 진단·치료 공유
제8회 Lecture Series 개최**

3월 16일 암병원 서성한홀에서 '제8회 Lecture Series'를 개최했다. Lecture Series는 암종별 최신 치료동향과 핵심지식을 공유해 교직원과 연구원의 진료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내분비대사내과·갑상선전체 김유형 교수가 맡아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유형 교수는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갑상선암 진단법과 치료법을 설명했으며, 간호사와 관련 부서 교직원 등 63명이 참석해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암병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암종을 주제로 Lecture Series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활습관으로 실천하는 암 예방
제1회 암 예방 캠페인 개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제1회 암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나의 건강점수 체크' 코너를 통해 금연, 절주, 식습관, 운동,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 10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균형 식단 체형, 건강 상식 OX 퀴즈, 포토부스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내원객의 호응을 얻었다.



**다중암 조기검진 최신 동향 공유
제44회 DLS 특강 개최**

5월 13일 암병원 서성한홀에서 해외연자 초청 특강인 '제44회 DLS'를 개최했다. DLS는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암 연구와 치료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강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에는 하버드 의과대학 부교수이자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 오도넬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다중암 조기검진'을 주제로, 한 번의 혈액검사 등으로 여러 암을 조기 발견하는 최신 연구 분야의 개발 현황과 향후 임상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암병원은 앞으로도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최신 동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감염병관리 네트워크
Annual Meeting 개최**

3월 1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2회 경기도 감염병관리 네트워크 Annual Meeting'을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중심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보건소,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계획 발표와 감염병관리 전문가 특강,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최신 감염병 동향과 현장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지난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공의료 성과를 담은
2025 공공부문 연차보고서 발간**

2025년 공공부문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공공부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 발간된 보고서는 '건강한 미래의 지평을 여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공공의료사업 성과를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사업,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한 원격중환자실 운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대응체계,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센터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집으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민 건강, 지역사회 협력, 나눔을 중심으로 36개 세부사업의 성과를 정리했다.



**찾아가는 중증소아 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작**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4월 1일부터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재택의료팀은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활, 영양관리, 약물상담과 보호자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이고, 권역 내 중증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권정순재단 제18회 기금 전달식
의료취약계층에 1억 원 전달**

3월 13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권정순재단 '제18회 기금 전달식'에서 의료 취약계층 지원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전달된 기금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남센터는 4월 전북 장수군을 시작으로 6월 서울 강남구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순회무료진료를 시행하고, 협약기관 추천 대상자에게 건강 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정순재단은 고 권정순 여사의 이웃사랑과 장학사업 정신을 기려 2008년 설립됐으며, 매년 기일에 맞춰 장학금과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수군 찾아가는 의료나눔
순회무료진료 실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순회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021년 장수군과 체결한 의료사회공헌 협약을 바탕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가 주관한 이번 진료에는 의료진과 교직원, 학생, 자원봉사자 등 184명이 참여했으며, 약 15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검사를 진행했다. 강남센터는 추가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밀검사와 2차 진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예방적 의료복지의 발자취
'희망디딤돌' 10주년**

'희망디딤돌' 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이 질병을 키우기 전에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이다. 그동안 희망디딤돌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700여 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했으며, 이 중 약 20%는 보라매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치료까지 연계되었다. 검진 지원을 넘어 전문의 진료와 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보라매병원은 앞으로도 소외된 시민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종합병원 의료진
갑상선수술 참관**

싱가포르 종합병원 의료진이 3월 5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내분비외과 채영준 교수팀의 갑상선수술을 참관했다. 싱가포르 종합병원은 싱가포르 최대 공공 3차병원으로 이번 방문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내분비외과와 이비인후과 교수진이 함께했다. 방문단은 채영준 교수팀의 경구강 갑상선수술 기법을 배우기 위해 경구강 로봇수술 3례와 경구강 내시경수술 1례를 참관했다. 이후 양 기관 의료진은 의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라매병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외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8년 완공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조성**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착수한다. 센터는 평상시 호흡기 전문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로 조성된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건립되며, 총 72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감염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분리하고, 본원과 연결통로를 설치해 중환자 이송과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공공재활의료 거점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국립교통재활병원이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이나 수술 이후 집중적인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해 조기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1기부터 3기까지 연속 지정되며 공공재활의료 거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은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 손상 분야의 전문 재활치료와 1:1 전담치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봇재활치료실, 수치료실, 운전재활치료실 등 특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암호화폐로 전한 새로운 나눔

김거석 후원인, XRP 10만 개 기부

3월 26일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김거석 후원인으로부터 암호화폐 엑스알피(XRP) 10만 개를 기부받았다. 이는 당일 기준 약 2.1억 원 규모다. 이번 기부는 김 후원인이 지난해 비트코인 1개를 기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암호화폐 후원으로, 현금 기부 등을 포함한 서울대학교병원 누적 후원금은 약 12.7억 원에 달한다. 김거석 후원인은 “다양한 나눔 방식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며 “병원 발전과 어린이 환자 치료비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기금과 어린이 환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병원 발전 위한 따뜻한 후원

이연복 후원인,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3월 25일 (주)유닉스 이연복 상무가 분당서울대병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선진화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연복 후원인은 “어린시절부터 온 가족이 꾸준히 기부를 생활화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에 보람을 느껴왔다”라며, “이번 기부가 병원의 새로운 도약에 보탬이 되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뜻 깊은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후원회



회복의 감사 담은 따뜻한 나눔

김세원·김청 가족, 1천만 원 기부

4월 15일 김세원·김청 부부와 자녀 김태을, 김태윤 가족이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김세원 후원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후원인 가족은 “치료 중인 아이들과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어린이병원 환아들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어린이날의 기쁨 전한 나눔

김성주 후원인, 환아 행사 후원

4월 30일 김성주 후원인이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위해 2,0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소아간호과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날 맞이 대잔치’에 사용되었다. 이번 행사는 환아들이 병원 안에서도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성주 후원인은 2016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를 후원해 왔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있다”며 “이번 어린이날이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아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명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만 5개월)

10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5백만 원 이상	김은미 김은식 김정환 김지희 김창실 김태우 김태현 김혜근 김혜영 노재현 박기영 박근우 박남숙 박두숙 박은희 박진명 배민석 백봉덕 김지훈 고병원 성재영 성정환 송선호 송형식 안영실 안형국 양지희 염동현 우서진 유신혜 유태왕 윤순애 윤이현 윤종현 윤지원 이계운 이권열 이기용 이영호 이병희 이연승 이호준 임명훈 장효정 전미경 정다슬 정용석 조병식 지정수 진선호 채진태 채현희 최선미 최순익 최원호 최은정 최창석 최창욱 최민희 한형숙 허현숙 홍진희	최도 조계중 약사사 5천만원 이상 김고은 사단법인 보화개발원 우신에너지 주식회사 장세정 주식회사 프롬아시아제이 템퍼코리아 유한회사 3천만원 이상 김동훈 서서제퍼다스 생애과학 허인영 1천만원 이상 주식회사에이제이그룹 (주)부흥엔씨 (주)엘엑스판토스 (주)오렌지커스텀 (주)대광네트웍정보 김민준 강영태 강해진 곽민선 권대원 김병관 김성주 김세원 김소현 김이련 김영미 김영자 김하나 김하민 김혜란 바이오월드주식회사 박성열 박우현 손주영 신소연 심승아 아이피소외국환중개역 영제퍼다스 생애과학 양보라 윤병선 이경채 이리안노라 이시원 이영미 장현강 전효정 정지화 조은경 조은희 주식회사 프제 주식회사 플스포컴퍼니 주식회사미래와도전 주식회사에이제이그룹 푸른안과의원	김아림 김영광 김영재 김정범 김지영 김하은 김희석 민다영 백이진 송민기 송주희 아엔트라 아영하세영 양유찬 윤석영 김현준 김해전 김호길 김호림 김호준 김효진 김민준 김희서 키즈유나이티드 한울 주식회사 황일정 1백만원 이상 (주)로브로스 (주)비네프 (주)신우엘엔비 (주)엘컬처컴퍼니 (주)엘씨에듀테인먼트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SURJIT DOSANU 고은솔 곽서준과 황민우 구자랑 권선희 권영재 권은완 권은지 권주병 권주아 글로벌리엔시스 가가를 김건중 김규식 김기수 김나영 김다혜 김동민 김동철 김명진 김민영 김민정 김세불 김서연 김선미 김성관 김성민 김성환 김소윤 김승혜 김영수 김영주 김영훈 김유담 김윤솔 김은진 김은찬 김이도 김재영 김정숙 김정우 김경자 김기현 김수현	김준영 김지민 김지수 김진혁 김태근 김태균 김태이 김태형 김하음 김한성 김혁준 김현하 김해전 김호길 김호림 김효준 김효진 나노미 남민우 남재택 남주클럽 노경민주생빌딩과점 데이비드갤러리 도효정 류영주 류우영 류호경 류호진 문예진 문하선 민다한 민병무 민예진 민형기 박건영 박나영 박동성 박로환 박미화 박민준 박서진 박성현 박소윤 박슬기 박이한 박재연 박재원 박정미 박주영 박주홍 박준서 박창현 박태리 박한민 박현중 방기환 배수현 백민정 백수빈 변경구 서덕인 서만규 서벌 서울자연이치과 설수수 성신양회(주) 손미현 손은채 손창숙 솔밭 유한회사	송대한 송민국 송민예 송마리 송성민 송승하 송영필 송지연 송지희 신성문 신세계 강남 피엘라렌 신해정 심유희 심지우 안세영 안세윤 안수원 안지은 알콩이네편집샵 양수찬 엠타리 에이치컴퍼니 염은호 염창민 염성희 오세희 오정수 오진영 오창택 오창희 오재은 오혜진 옥윤주 유리맑은교회 원준연 유다현 유단살림 유수자 유영커머스 유지인 유태석 유하늘 육정미 윤금엽 윤승애 윤지영 은혜직물 은효정 이강산 이규선 이기는 이디영 이동혜 이민진 이범준 이상민 이상영 이철민 이철화 이승찬 이은진 이은호 이지영 이재훈 이재현 이준형 이준혁 이진호 이창민 이현미 이현정 이형곤 이혜진 이호준 이호중 임나영 임동규 임소연 임슬기 임유진	임익균 임지수 장동혁 장용준 장인아 장하리 전이은 정건 정고은 정기범 정병수 정병우 정보람 정성윤 정승익 정승효 정신호 정연태 정유정 정준석 정창용 정하영 정형태 정해림 정훈식 조미숙 조미현 조서호 조성원 조수진 조윤아 조이든 조혜음 조혜진 주식회사 레펠-인텔 주식회사 아이케이무드 주식회사 에이저알렘 주식회사 지엘이 주식회사 청원이엔비 주식회사 케이자와 주식회사 플랜엠 주식회사캡티브릭스 주식회사태평양이엔지 진용주 차유진 차정우 채민 채명성 채일주 찬성우 최성원 최세영 최연준 최재원 최준우 김지호 김창식 김태순 김한석 김현영 김현주 김혜리 김경훈 남상호 남정미 남주영 노지성 류기원 류기원 문현숙 민수홍 박민희 박성국 박세화 박수정 박은경 박종혁 박준동 박준성 박지영	황태웅 50만원 이상 (주)유한캠벌리 (주)하나산업 강경재 강병국 강희경 고은영 고은희 공간깃들 곽승준 구중심 국피플 손해사정 권소정 권순민 권정은 권지향 권혁은 그레블 금성 김강한 김경미 김경아 김다혜 김달영 김동규 김만세 김문주 김미경 김민지 김보경 김보람 김상준 김서민 김서울 김세아 김수안 김승욱 김완일 김용태 김윤아 김은하 김재일 김재환 김정우 김정민 김준우 김지영 김지호 김태순 김한석 김현영 김현주 김혜리 김경훈 남상호 남정미 남주영 노지성 류기원 류기원 문현숙 민수홍 박민희 박성국 박세화 박수정 박은경 박종혁 박준동 박준성 박지영	임현준 임형진 임혜진 장순자 장한결 장한별 장승욱 장정호 장길수 장상민 장성진 장서현 장영재 장영진 장우영 장재훈 장중룡 장승희 조성철 조해령 조홍재 주식회사에이제이그룹 주식회사아이디아시스템 지다현 지선명 천민재 천초현 최보경 최수정 최예인 최용 최원희 최영우 최재경 최재원 최진석 태화신역(주) 티다 한규화 한상동 한이찬 한일길 한지연 한지연 한혜원 한화갤러리(주) 하승원 허정원 이규호 홍석표 홍성현 황은총 황지윤 황재은	강유진 강은희 강은정 강지영 강재순 강중구 강지훈 강찬영 강창수 강재훈 강태규 강태희 강한별 강현진 강호건 게이이 있는 비밀의집 고경준 고려대국어음운 고석영 고성희 고예진 고은영 고정희 고진경 고창훈 공민석 공세훈 공진표 공해정 곽승익 곽영주 곽유진 곽은주 곽은호 곽희정 곽희준 곽희정 곽희하 곽태인먼트 권경민 권경희 권민선 권민수 권민식 권세할 권순철 권오규 권재이 권준하 권지은 권진용 권현정 권혜민 권혜원 권혜주 금다정 금동식 길미영 김기영 김가영 김강민 김강현 김건우 김건울 김결 김경 김경곤 김경민 김경선
----------------------	-----------------	--	---	---	--	--	--	---	--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0만 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0만 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김경숙	김선혜	김중현	더보이즈 케빈	박소희	서금석	신용하	우지현	이명지	이정우	장승화	정찬규
김경숙	김선환	김주경	더새김	박수영	서대현	신유미	우지협	이민경	이정윤	장이란	정찬연
김경신	김선경	김주엽	도연희	박수정	서삼석	신유준	우재민	이민경	이정은	장여정	정하람
김경태	김성경	김주영	동우이노베이션	박수정	서세희	신윤서	원대연	이민경	이정하	장예정	정하윤
김경훈	김성민	김주하	류기영	박수진	서승희	신윤진	원영자	이민아	이제이	장은주	정하윤
김경희	김성운	김주현	류기신	박승재	서수인	신율아	원윤경	이민영	이종국	장일모	정하윤
김광영	김성희	김주호	류우정	박시우	서승연	신정섭	원은상	이민한	이종현	장정연	정현중
김광현	김세영	김준영	류지혜	박시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신중재	원정담	이버금	이주미	장주연	정현고
김규환	김소연	김준우	명화원	박연두	서원웅	신중현	원종진	이병호	이주영	장수원	정형욱
김근하	김소영	김준혁	모주환	박연희	서정원	신진경	원종혁	이병희	이주한	장철웅	정혜자
김기진	김소윤	김중환	문경림	박영서	서준원	신혜진	원현일	이보라	이주화	장철혁	정호섭
김기철	김소윤	김지섭	문보라	박영신	서창윤	신화정	원현일	이보림	이주환	장한진	정호숙
김기호	김소울	김지우	문서호	박예민	서하림	심대섭	원혜송	이상렬	이주환	장현진	정홍희
김나영	김소현	김지윤	문선미	박유미	서현정	심지울	위은숙	이상민	이주희	장혜영	정희미
김나영	김소희	김지은	문성준	박유진	서호승	심형섭	위인	이상아	이준수	장효정	정효리
김난영	김수경	김지한	문세익	박유진	서호승	심해승	위다혜	이상중	이준영	전갈순	정희선
김누리	김수관	김지현	문수현	박윤빈	서희주	아트랩미술포소스	유상영	이상준	이준용	전나현	조동근
김단비	김수연	김지현	문윤경	박윤정	석상선	안경박사 쿠르디탈림	유상은	이상호	이준원	전대수	조미현
김대기	김수진	김지호	문이지	박은경	석상현	안민의	유선영	이상훈	이준형	전미경	조병극
김도연	김수현	김진우	문재민	박은실	석세현	안병선	유수정	이서이	이지연	전미하	조서연
김도연	김진울	김진희	문정규	박의진	석지혜	안서연	유수희	이석현	이지연	전민선	조선희
김도우	김순영	김찬기	문해진	박이동	석지혜	안성준	유영은	이선정	이지영	전범식	조선희
김도윤	김시지	김찬기	민경실	박장호	성동엽	안예서	유은선	이선후	이지영	전삼학	조성환
김도율	김승혜	김찬기	민동환	박재락	성동혁	안윤상	유일정	이성진	이지영	전서은	조세민
김도이	김시훈	김재민	민성현	박재범	성민아	안은주	유지민	이성호	이지욱	전석영	조소영
김도훈	김아림	김철오	민지수	박재순	성선희	안재성	유지선	이세원	이지원	전선영	조수익
김도희	김아현	김철중	박기림	박재은	성연우	안정선	유지성	이소라	이지원	전수정	조이윤
김동균	김양수	김초연	박가은	박재인	성은주	안정아	유지안	이소향	이지은	전영신	조애리
김동수	김양희	김초희	박가은	박재인	성정환	안준영	유지안	이수진	이지은	전영민	조연수
김동연	김엘리	김크리스탈링	박기현	박정완	성주영	안준호	유지현	이수진	이지현	전영희	조영정
김동연	김연보	김태민	박경미	박정윤	성지연	안지은	유현동	이수진	이지현	전예은	조예현
김동완	김연정	김태연	박경민	박정후	성지혜	안지혜	유혜원	이숙민	이지은	전은경	조원규
김동은	김연지	김태오케이	박경민	박정후	성현숙	안지혜	육은혜	이숙현	이진희	전은주	조원희
김동찬	김연진	김태웅	박경신	박준신	성현정	안채원	윤경호	이순영	이창근	전은효	조윤경
김동한	김연후	김태원	박경준	박준민	세무회계컨설팅 불날	안태사	윤나영	이승규	이창민	전인영	조윤람
김동한	김연희	김태은	박경진	박지선	손기영	안형진	윤미영	이승준	이창민	전정민	조은서
김두남	김연화	김태현	박경필	박지영	손동원	안해림	윤민식	이승진	이창우	전지원	조은서
김두레	김영빈	김태형	박경화	박지원	손명선	안해정	윤보경	이승찬	이채원	전태현	조은아
김두현	김영상	김해환	박노웅	박지은	손병철	안효섭	윤보영	이승하	이철희	장광호	조지현
김라온	김예솔	김현경	박누리	박지환	손선경	안다은	윤서윤	이승환	이춘복	장기주	조재천
김래현	김완영	김현석	박다정	박지환	손소연	안모경	윤선영	이승훈	이지은	장대송	조재홍
김로아	김용건	김현성	박대남	박진수	손승욱	양성필	윤성구	이시우	이하민	장대식	조정원
김명남	김용원	김현수	박도걸	박진속	손애경	양세영	윤성영	이시은	이하석	장명희	조정훈
김명옥	김용원	김현숙	박동신	박진아	손영민	양승엽	윤수진	이매경	이한표	장문규	조정환
김문숙	김용인	김현아	박동일	박찬일	손예솔	양신혜	윤이영	이매경	이해민	장민경	조정환
김문영	김용환	김현주	박두현	박창수	손은주	양예솔	윤여경	이양희	이향정	장민규	조주형
김미경	김용희	김현지	박태환	박창수	손의남	양은유	윤여빈	이연호	이혁중	장서용	조태준
김미량	김우선	김현규	박태진	박태윤	손정현	양유미	윤이찬	이영란	이현석	장선민	조현열
김미령	김우진	김현우	박현석	박태진	손창환	양윤서	윤이현	이영민	이현숙	장성김(미화연)	조홍래
김미림	김운하	김형태	박현중	박태진	손훈기	양정현	윤재혁	이영숙	이현정	장성아	조효창
김미선	김유라	김혜란	박형배	박태진	송다은	양지윤	윤주리	이영애	이현주	장성은	조희은
김미송	김유미	김혜란	박형석	박태진	송명희	양진아	윤준서	이영지	이형민	장소연	주달래
김미아	김유미	김혜림	박형천	박태진	송미래	양해림	윤지선	이영화	이형진	장소연	주식회사 트루업
김미영	김유정	김혜림	박보영	박태진	송미아	양해림	윤지영	이영희	이형준	장승민	주애순
김민경	김유화	김혜수	박부래	박태진	송민서	양형태	윤지영	이예림	이혁중	장수미	주재원
김민기	김윤수	김혜영	박승권	박태진	송민진	양해진	윤지용	이예지	이혁중	장수미	주현정
김민석	김윤우	김혜진	박상우	박태진	송여진	양은영	윤지원	이예창	이혁중	장수철	주광문
김민성	김윤혜	김호민	박상은	박태진	송영주	양민정	윤지윤	이오한	이혁중	장수민	주민지
김민수	김윤	김호수	박상인	박태진	송영환	양소연	윤지현	이우주	이혁중	장수재	주서우
김민식	김윤나	김홍	박상희	박태진	송유진	양인용	윤지호	이우진	이혁중	장수혁	주신미
김민아	김은별	김홍기	박새미	박태진	송유정	양지영	윤지후	이우진	이혁중	장수혜	주신희
김민영	김은솔	김홍남	박서희	박태진	송유주	여계순	윤진주	이원진	안하영	장시윤	주신화
김민전	김은솔	김효진	박서아	박태진	송정아	여해솔	윤진형	이유정	임근아	장애숙	주신정
김민정	김은정	김휘영	박선아	박태진	배소영	여현호	윤창윤	이유진	임길재	장양선	주진영
김민정	김은지	김희수	박선용	박태진	배수남	김종서	윤철	이유진	임다혜	장세연	주지름
김민지	김은하	김희연	박선화	박태진	배정미	송창준	윤혜령	이윤경	임서은	장여진	주진진
김민호	김은희	김희원	박성규	박태진	배지영	송창승	윤혜령	이윤주	임수경	장예원	주진경
김병석	김은환	나봄	박성규	박태진	배태진	송하영	윤혜리	이은경	임아윤	장용식	주진영
김병성	김인식	남용성	박성민	박태진	배하니	송현영	이은리	이은미	임은산	장유조	주진안
김병훈	김인식	남경석	박성숙	박태진	배나영	송현희	이은아	이은희	임은영	장원준	주진안
김보경	김자영	남궁현호	박성은	박태진	백남옥	송홍주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보미	김지희	남궁관	박성은	박태진	백선희	송홍주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봉남	김재민	남수경	박성주	박태진	백성현	시도 스튜디오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상기	김재현	남수호	박성준	박태진	백승린	신기희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상남	김재환	남진숙	박성준	박태진	백승린	신동규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상신	김정숙	남현정	박성준	박태진	백정욱	신동훈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상협	김정숙	남현준	박성희	박태진	백주은	신두선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상희	김정욱	노수경	박성희	박태진	백진희	신미선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사라	김정우	노양현	박세원	박태진	백현진	신성용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서준	김정자	노연서	박세은	박태진	범영아	신세원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선영	김정주	노은지	박세진	박태진	변승우	신승아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선옥	김정호	노은주	박세진	박태진	변정섭	신승현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선용	김정희	노이엘	박소영	박태진	사공승철	신시내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선일	김제이	노지은	박소영	박태진	서영훈	신영아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김선진	김종민	노하은	박소은	박태진	상의민	신예진	이은희	이은희	임은향	장유리	주진현

최경주	한미경	배기범	나윤경	조성임	박진택	박은희	강소현	남경완	이경엽	조성우
최나예	한보람	배성범	남궁성	조수철	성모열병원	박지현	강수인	남궁형욱	이경희	조안나
최낙근	한보영	배수경	남지향	조은영	안태욱	배경덕	강은희	남다연	이근욱	조영숙
최동규	한상영	한을 주식회사	노정환	지양희	이병근	복정심	강지영	남영임	이기현	조영진
최두리	한선교		대경희	지화숙	임영규	서예민	강지은	남정희	이내래	조윤경
최미경	한성수	1백만 원 이상	류미숙	진성용	조영진	신다애	강지훈	노진숙	이동선	조은아
최미라	한성욱	(주)보성메탈	류지곤	차영미	홍사민	신연희	강호	동준용	이민기	조희경
최민	한수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승환	차재세		심진식	고광필	류은하	이미나	주덕만
최민석	한승현	삼재춘	박미희	최나이	1백만 원 이상	안성준	고선유	류인애	이미재	주재원
최민재	한웅	최의근	박성준	최문형	구선우	안화영	고정민	류지원	이병현	진호준
최민희	한유정	황호영	박수희	최미정	김혜민	우정임	곽성혜	류혜인	이복남	채수길
최보균	한유주	50만 원 이상	박은하	최병인	최신미	장영	곽용호	민정하	이상남	채인호
최보라	한운선	강민주	박장기·정영순	최신미	최은석	장희진	구지현	박경운	이상정	최광현
최보선	한지우	강창현	박주홍	최은석	최정식	박난경	구정귀	박경진	이상완	최례오
최서이	한지우	김미현	박하나	최정식	최중혁	박성준	권다을	박규형	이승국	최미숙
최선영	한지혜	김희현	박한내	최중혁	한규희	박성우	권소담	박남영	이예지	최선희
최상욱	한치현	김희중	박혜운	한연비	홍명근	박진우	권순안	박묘숙	이왕석	최상지
최수현	한현광	박영주	백선하	홍명근	홍지혜	박현지	권은정	박미영	이우진	최성철
최소울	한효열	박종성	복진산	홍지혜	황미희	백선하	권혜린	박상임	이원재	최성희
최승연	함소윤	백종욱	서연진	황미희		변석수	김광오	박서현	이유정	최수진
최아란	함우진	최석호	서원용			서동범	김광일	박설	이윤중	최소복
최애라	해나루나빛나	신선미	소호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서이화	김나영	박순부	이은선	최영준
최연재	허새늘	신영옥	손승연			신동하	김낙현	박영수	이은지	최영화
최영훈	허수진	신지원	손인숙			임이용	김남희	박영숙	이재호	최은영
최옥선	허양재	송영규	송영규			이경준	김도유	박영재	이정민	최은주
최완수	허연주	송윤숙	송윤숙	1억 원 이상		이용구	김동준	박예송	이정욱	최정선
최원석	허영지	송현주	송현주	김광진		이정욱	김란	박인태	이정화	최창원
최유리	허정임	신진경	신진경	김상만		이지영	김미영	박재홍	이정희	최형수
최유미	허현숙	안진	안진	김요섭		이진	김미지	박정호	이종원	최희경
최윤	현희	안태사	안태사	김현숙		임재리	김민주	박정우	이준우	한명훈
최윤미	형지오	안혁	안혁	남정현·이원숙		장병근	김병일	박진숙	이준희	한성희
최윤서	홍경원	양승국	양승국	박두식		(주)오성엔지니어링	김상림	박태섭	이지선	한지애
최윤석	홍미라	임서현	임서현	이상구		티씨엔코리아주식회사	김진아	박현선	이치현	허성순
최윤선	홍승대	예정연	예정연	이연복		한상훈	김상민	박형섭	이창희	허창훈
최윤정	홍열	오국환	오국환	이음목		홍종열	김성은	방진섭	이희중	현준영
최윤철	홍영기	우상우	우상우	주식회사세오엠		정규은	김세환	배경덕	이해원	홍승기
최은경	홍원지	원혜영	원혜영	주식회사세종건설	50만 원 이상	최준용	김세환	백남중	이현경	홍연희
최은도	홍유건	유미자	유미자	주식회사이온		(주)신승알앤디	김소현	백승호	이혜진	이호경
최은서	홍종길	유승희	유승희	주식회사이온			김소현	백현주	이화양	홍영주
최은숙	홍주혜	유월선	유월선	(주)뉴니테크			김수미	범해정	이희순	홍은희
최은영	홍지솔	유진	유진	(주)인인엠펙			김수진	변석수	이희소	홍진성
최은진	홍지운	윤보영	윤보영	최영덕			김슬기	변지현	이희정	황윤정
최이준	홍태의	윤신오	윤신오				김영아	복정심	임서영	황혜영
최인규	황동현	이경원	이경원	5천만 원 이상			김영아	봉인경	임윤경	
최인호	황성일	이경이	이경이	임문성			김영자	서경진	임재영	
최임근	황소윤	고은정	고은정	윤용화			김영한	서남석	임준	
최재원	황용승	곽영주	곽영주	이행명			김용범	서동훈	장미영	
최재혁	황유성·황유민	곽영호	곽영호	주식회사재권			김유정	서상순	장준성	
최재호	황인성	구보권	구보권	(주)토니모리			김유진	서애스더	장영창	
최정원	황인재	권법용	권법용	3천만 원 이상			김은경	서예원	장원기	
최정윤	황제소·김비살	권유혜	권유혜	이영란			김은선	석현진	장윤석	
최정윤	황진솔	김경아	김경아	이영희			김은솔	세움세무회계사무소	장은선	
최정현	황현기	김기숙	김기숙	이예지			김익서	손경화	장주승	
최정화	황현민	김대영	김대영	이옥상			김인아	손지현	장진영	
최지나	황해인	김동완	김동완	이은정			김인주	손혜민	장희숙	
최지원	황효정	김동우	김동우	이장호			김재기	송명진	장희진	
최지이	황효주	김민숙	김민숙	이정은	1천만 원 이상		김재성	송영애	장기현	
최지혜	황희선	김미옥	김미옥	이정재	경우고속도로(주)		김재환	송정환	전미정	
최진웅	황희원	김민석	김민석	이지미	김정자		김재원	신선희	전수정	
최창욱		김민정	김민정	이현경	김진익		김정은	신영옥	전영이	
최하나	서울대학교병원 환촌후원회	김별님	김별님	이현정	김철호		김정인	신원순	전유진	
최한승		김석의	김석의	익명	박영률		김정하	신윤성	전재현	
최현식	1억 원 이상	김석화	김석화	임소애	배상모		김정희	신정연	전현선	
최형석	배정철 어도	김소형	김소형	장성일	새서울내과(이강성)		김중민	심영숙	정광래	
최화영		김승자	김승자	장영우	선우준		김준성	심재수	정광록	
최효주	5천만 원 이상	김승로	김승로	장의진	윤주형		김지수	심현주	정규은	
탁혜윤	윤인섭	김승협	김승협	장효정	이동환		김지현	안선화	정다위	
통로		김양근	김양근	전갑수	이상만		김지은	안소영	정다운	
티구안이즈	3천만 원 이상	김영아	김영아	전문옥	이상재		김지은	안영지	정부용	
피정원	(주)엔지노믹스	김유리	김유리	전미정	이영창		김지현	연재진	정성진	
필다해		김유미	김유미	전병선	전마용		김지현	염진섭	정수향	
하경은	1천만 원 이상	김윤상	김윤상	전한숙	정소영		김진옥	염혜선	정신주	
하사랑	(재)남춘재단	김윤준	김윤준	정대희	조내규		김재현	오흥권	정영미	
하승수	배선관	김윤희	김윤희	정미화	조대현		김춘옥	유재우	정영순	
하웅	배선관	김은영	김은영	정보람	(주)사람의손(헬링리더스)		김태우	유지연	정우진	
하준수	유정현	김정화	김정화	정성창	주식회사대원산업개발		김하늘	유현정	정중철	
하태욱	이소호	김종욱	김종욱	정수아	주식회사시피아이		김하늘	유형원	정중철	
하해숙	주식회사 진주	김주성	김주성	정연홍	채태석·정희		김하림	유희정	정진행	
한경래	최선미	김중원	김중원	정은주			김하림	윤성민	정창훈	
한경화	최승일	김지영	김지영	정종철	5백만 원 이상		김혜련	윤연이	정현숙	
한경희	최인희	김지영	김지영	정지운	김세중		김홍빈	윤유석	정현숙	
한기만	한상은	김진혁	김진혁	정진원	김재현		김홍석	윤지영	정혜미	
한두희		김현영	김현영	정진욱	김중희		김후영	윤창진	정혜윤	
한택학원	5백만 원 이상	김현지	김현지	정현명	김진섭		김희수	윤필영	정희림	
	(주)윤현상재	김효진	김효진	조비룡	문재훈			윤호연	조서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발전후원회**

**5천만 원 이상
미래국제재단**

**3천만 원 이상
문채수&권복임**

**1천만 원 이상
이한규·원정(이한규·내과)**

**5백만 원 이상
(주)교보문고**

**1백만 원 이상
김기봉
김선덕
백영철**

**50만 원 이상
노무법인권익**

**10만 원 이상
안정환**

※ 자세한 후원 확인은 전화 (02-2072-1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후원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어린이병원후원회	합춘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나눔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발전후원회
문의	02-2072-4122	02-2072-3004	02-2072-0304	031-787-7000	031-787-1142	02-870-2174
예금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후원회	합춘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전 문의 필요
계좌번호	신한 100-020-920897	신한 367-03-023079	신한 100-008-864367	신한 100-020-751657	신한 100-019-706731	

서울대학교병원 후원인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해주신 후원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병원이 마련한 혜택입니다.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후원회원 성명 등재	건물 벽면							
	병원보, 매거진, 연보							
후원인의 거리-기부스토리 소개(개인후원회원)								
Honor SNUH人 제작-LED 전광판 패널(개인 후원회원)								
감사패 증정								
무료주차 (차량등록)	후원회원 또는 후원회원 가족							
진료비 감면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연간 300만 원 한도 / 회원 및 가족 합산)	후원회원 및 배우자							
	부모 및 자녀 (개인 후원회원)							
종합건강검진비 (검진 1회당 1매, 기한 내 사용)	후원회원 및 배우자 (연 각 1매 발급)							
진료지원	외래 예약상담							
	후원인 지원실 라운지 제공							
	응급의료 상담							
	입원 안내							
병원 간행물 제공								
기념품 제공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02-2072-1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 시간의 미학

동면에서 깨어난 노인이 마주한 미래, 기억 속 기쁜 말들이
건네는 위로, 노년의 삶과 피부에 남은 시간의 흔적까지
매거진 <VOM> 50호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인스타그램



매거진 VOM
웹진

